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1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새해를 축하합니다

백두의 아침: …장백 홍두산 쪽에서 본…

근로자

제 1 호 (170)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1960년 1월 15일

차 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서적 해제 및 평론—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한 1959년을 보내고 더욱 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새해 1960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우리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 밑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제 1차 5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에서 2년 반 앞당겨 지난 6월에 완수하였으며 년말까지는 113%로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습니다.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경공업 기지가 창설되고 더욱 확대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전 후 우리는 페허 우에서 불과 수년 간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의식주에 대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모두가 다 배우고 다 일하며 다 희망에 가득 찬 즐겁고 흥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년의 조선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번영하며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자기의 조국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기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당의 령도 밑에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공훈을 세우고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계속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에게 심심한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 농업 생산의 장성을 위하여 꾸준히 로력하고 있는 국영 농목장 로동자들과 전체 협동 조합 농민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과 민족 문화 예술의 개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 일'군, 과학자, 기술자, 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인민들의 생명, 재산과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고 있는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 내무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전체 인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온 재일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새해의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우리 동포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고통과 불행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과 빈궁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남조선 동포들을 잠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반동 통치로부터 구원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1959년은 세계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이 거대한 승리를 달성한 해였습니다.

평화와 사회주의의 성새인 위대한 쏘련은 경제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 세계를 경탄케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쏘련 인민은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인류에게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형제적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약진 운동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주의 중국의 위력은 급속히 장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적 국가들에서 사회주의는 성과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은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이는 우리 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

동지들!

우리가 지난 시기에 달성한 승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행하게 될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 획기적 전진을 가져 와야 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해 1960년은 인민 생활을 더욱 높이고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제 2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준비하는 해로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를 기계화함으로써만 농업 협동 조합들을 더욱 공고화하고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고 홍겨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서 거대한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모든 공업 부문들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과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로써 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는 허다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산과 절약을 위한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동원하여 국가 계획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초과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업적이 그들의 생활 개선에 더욱 뚜렷이 더욱 충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채소 생산을 증가시키고 축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각종 부식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직물과 일용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 주택들과 학교, 구락부, 병원,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 등 문화 후생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1960년을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해로, 우리 인민의 살림살이를 더욱 유족하게 하는 해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이 전반적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새 사회의 훌륭한 역군이 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더욱 높은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증산하고 절약하며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승리는 반드시 정당한 위업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편에 있을 것입니다.

권두언

천리마 시대는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에게 진지하게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전 당이 꾸준히 학습하는 기풍을 확립하자! 이것은 최근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기한 전투적 구호이다.

당 중앙 위원회가 제기한 이 구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을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로 그리고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결정적 고리로서 전체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몸소 실천하여야 할 혁명적 과업이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를 불문하고 당의 결정에 충실하며 혁명 과업을 잘 수행하려면 우선 자신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한 학습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이 전 당적으로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지는 이미 오래다. 김 일성 동지는 벌써 지난 해 3월 함북도당 확대 전원 회의에서 간부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학습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공부 안 하고는 경제를 운영할 수도 없고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다》고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근거하여 전 당적으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으며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는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학습은 의연히 혁명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일부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자체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학습을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한편 당 단체들은 그들의 학습에 대한 세밀한 조직과 엄격한 통제가 없이 거의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고 호소와 강조로 대치하였다. 게다가 우리 당 사상 교양 사업에서 중요한 결함으로 남아 있은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는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에 적지 않은 저애를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혁명의 급속한 발전을 계속 견지하며 더우기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 전투를 앞에 둔 우리 당에 있어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문제로, 시급히 극복되여야 할 긴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간부들과 모든 당원들의 학습을 강화하고 그들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이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혁명 사업의 중

요한 부분으로 내세우고 이에 전 당의 력량을 집중하는 것은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선 모르고서는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없고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약 당원이 사회 발전의 경제 법칙을 모르며 당의 경제 정책을 리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백 번 자기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며 철저한 공산주의를 표방하여도 그 공산주의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전집 제 29권, 168페지).

지난 해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반면에 부분적이기는 하나 발로된 심중한 결함은 바로 우리의 일'군들이 사회주의 경제 법칙과 경리 운영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경리를 정확히 운영할 수 없고 혁명의 발전을 성과 있게 촉진시킬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하여 주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 것을 창조하는 사업이며 사회와 세계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회와 세계의 발전 법칙을 모르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개조할 수도, 발전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게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학습하는 것은 의무로 되며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더우기 우리 혁명의 과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나라 혁명 과업 수행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 선진 국가들과 함께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야 한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혁명 리론과 공산주의 건설 리론을 배워야 하며 쏘련을 비롯한 선진 사회주의 나라들의 건설 경험을 배워야 한다.

문제는 일'군들의 리론 실무적 수준이 현실의 발전 수준에 상응할 때에라야만 혁명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고 사회를 성과 있게 개조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일'군들의 리론 실무적 준비는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는 우리의 장엄한 현실과 사회 발전 수준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혁명 과업 수행에 저애를 주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소상품 경리와 자본주의적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 경리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였으며 결과에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우리 경제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포괄적으로 작용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생산 조직과 경리 활동에서 계획적인 생산, 분배 및 소비의 사회주의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적인 객관적 요구로 되였다. 또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되고 기술, 문화 혁명이 성과적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도덕 생활에서도 사회주의적인 것이 지배하게 되였다.

현실은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고 변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계속 과거 개인 경리를 지도하던 때의 낡은 사업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 경리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필요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지어 그들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무엇이며 경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며 생산 원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생산을 《지도》하였다.

오늘 우리 당이 학습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리론 실무적 준비가 우리 나라의 발전된 현실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사정에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을 수행하며 보다 새롭고 긴장된 전투를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시기로 될 제 2차 5개년 계획을 래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제 2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롭고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로서 보다 준비 있고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제 2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계속 혁신,계속 전진의 천리마 운동을 견지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제 2차 5개년 계획의 새 전투를 준비 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금년도를 완충기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미 거둔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력량을 재편성하여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길에 들어 섰다.

새 전투를 앞둔 력량의 재편성은 결코 사회주의 경제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물질 기술적 준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 생활 령역에서 철저한 준비를 의미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리론 실무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를 완충기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면서 이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리 당이 취한 이 조치는 완충기에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리론 실무적 준비에서의 락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제 2차 5개년 계획의 새 전투를 위한 일'군들의 준비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조치는 우리 당이 전 당적으로 학습 기풍을 확립하며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리론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과 전체 당원들의 과업은 전 당이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와 상무 위원회 결정을 성과 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경주하는 것이다.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우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실천에로 확신성 있게 전진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객관적 전망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을 위하여, 우선 모든 사물을 유물 변증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며 사회 발전 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는 맑스주의 철학을 학습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 력사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학습을 통하여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립장, 관점, 고매한 혁명 정신을 깊이 연구 체득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교양에서 현 시기 중요한 것은 당 정책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우리 혁명의 활동 지침이다. 당 정책 학습의 강화는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나라 현실과의 밀접한 련계를 지을 줄 알며 맑스—레닌주의를 교조로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당 정책 학습의 강화는 또한 전 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 과업을 정확히 수행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법칙과 사회주의 경리 운영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특히 지도 일'군들은 정치 경제학을 비롯하여 공업, 농업, 상업, 계획 등 부문 경제학을 심오히 연구하며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 경리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학습하여야 한다.

금번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와 상무 위원회 결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학습을 우리 나라 혁명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나라 혁명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쓸모 없는 것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제 정세를 연구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 관점,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며 우리 투쟁에 있어서 행동상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선진 나라들의 투쟁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개별적 명제들을 암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론의 혁명적 본질을 리해하며 그에 기초하여 현실에 제기된 사건들과 혁명 투쟁의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결론을 지을 줄 알며 그 결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 총결 보고).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 우리 일'군들의 태도는 이 리론의 일반적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고 우리 앞에 제기된 실천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동시에 학습을 체계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기간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맑스—레닌주의 학습에서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체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진행된 것이다. 결과에 어느 한 문제도 똑똑히 알지 못하고 지나 가게 되였으며 실천 활동에 정확히 적용할 수 없었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적 과학으로서 한 개의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만 그의 보편적 진리를 옳게 료해할 수 있고 관점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당 정책 학습에 있어서나 사회주의 경리 운영에 대한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역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당 중앙 위원회 결정들에 의하여 《토요 간부 학습》, 매년 1~2개월 간씩 실시하는 당원 강습을 비롯하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학습을 주로 강습의 형태로 진행하게 한 것은 바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된다.

우리의 학습이 현실에 더욱 접근하며 현실 문제 해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운 지식을 실제 사업에서 부단히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지식을 확고히 하고 더욱 풍부히 하여야 한다. 실천 활동을 통하여서만 배운 지식을 심각하고도 절실하게 체득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을 언제, 어떠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목적은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데 있다. 배운 지식을 실천에 많이 적용하여 혁명 과업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해결할수록 우리의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와 상무 위원회 결정의 성과적인 실천 여부는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 그리고 전체 당원들이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정신을 참답게 인식하고 학습을 혁명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토요 간부 학습》을 비롯하여 각종 단기 강습들에 철저히 참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습회와 강습을 통하여 배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하루 2시간 이상 학습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학습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얻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반드시 면밀한 사업 조직과 인내성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 각급 당 단체들은 회의와 사무를 간소화하며 사업 조직을 정확히 하여 모든 일'군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당 단체들은 학습을 일'군들의 《자각성》에 맡겨 자연 방임해 두거나 일반적 호소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학습을 생활화하도록 당적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 자신이 학습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일은 곤난을 무릅쓰고 꾸준히 연구하며 사색하는 투지와 인내성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며 고도의 정신적,육체적 긴장성을 요하는 투쟁 과정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식의 습득을 신비한 것으로, 오를 수 없는 높은 봉우리로 생각하고 미리부터 락심하거나 겁을 먹는 현상도 역시 옳지 않다. 우리의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원래 리론 자체가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혁명적 실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리해 못 할 리론이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의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얼마나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도 이악하게 달라 붙어 끝장을 내는 혁명가적 기질이 필요하다.

전체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사회를 능숙하게 운전하여 앞으로 더 빨리 내달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물론하고 다 학습해야 한다》(《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자체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1959년 12월 25일 《당 력사 집필 요강》 토론회에서 한 연설)

김 창 만

금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직속 당 력사 연구소에서 조직한 《당 력사 집필 요강》에 대한 토론회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당 력사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밑천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력사를 연구하며 교수하는 동지들이 거의 다 모여 집체적인 토론을 진행한 결과 창조적이고도 건설적인 많은 고귀한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당 력사 연구와 교수에서 주로 사용되여 온 중앙 당 학교의 《조선 로동당 투쟁사 강의 속기록》이 가지는 부족점을 시정하였다. 그리고 토론회는 당 력사 연구를 전면에 걸쳐서 과학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를 더욱 당성의 견지에 올려세워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많은 동무들이 토론에 참가하였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는데 절대 다수의 의견은 지금 당사를 집필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참고로 되며 또 응당 접수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어느 의견이 옳으며 어느 의견이 그릇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1

당 력사 집필 요강 그 자체에 대해서나 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금번 토론 행정을 통하여 느낀 것은 다음 두 가지 문제 즉 우리 당의 력사를 연구하고 서술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하나는 우리 당 력사의 연구 대상에 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당 력사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당한 대답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과학으로서의 우리 당 력사의 연구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우리 당 력사의 연구와 서술에서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되며 또 무엇은 거기에 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하겠는가?

조선 공산당이, 조선 로동당이 어떠한 력사적 조건과 환경에서 발생하였고 발전하여 왔는가 하는 문제, 우리 당의 발생과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문제――이것이 당 력사 연구에서 초점의 하나로 되여야 하며 이에 중요한 관심이 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당의 리론적, 사상적 및 조직적 제 원칙들과 매 력사적 시기, 력사적 계단에서의 당의 로선, 정책, 전략과 전술의 작성과 그의 발전, 그에 근거하여 전개된 우리 당의 구체적 사업―활동에 관하여 연구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당 력사 집필 요강에 불충분하게 반영되여 있는 것은 이 요강이 가지는 비교적 심중한 결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첫 토론에서 김 시중 동무는 우리 당의 력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리론적 문제들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이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당의 리론적 사상적 및 조직적 제 원칙들이 매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활동과 결부되여 연구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우리 당 력사의 모든 문제들이 어떠한 력사적 조건하에서 어떠한 계급적 력량 관계 속에서 제기되였는가, 혁명의 대상과 동력은 무엇이며 혁명의 구체적 과업은 어떻게 제기되였는가, 그 수행을 위한 당의 구체적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였는가 하는 것이 인민 대중의 투쟁과 긴밀히 결부되여 연구되며 서술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 당의 력사로서의 특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한 방면으로는 인민사와 구별되여야 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레닌적 당의 일반적 원칙이 우리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서 어떠한 특색을 띠게 되였고 우리 당이 어떠한 특징적인 길을 걸었는가를 밝혀야 한다.

쏘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혹은 다른 나라 당들도 다 레닌적 당의 기본 원칙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매개 나라들에 조성된 력사적 조건에 따라서, 그 민족의 력사와 로동 계급의 특색에 따라서 그 당들이 걸어 온 길도 특수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의 력사를 서술함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간고한 투쟁을 령도하여 온 그 특수한 경로를 생동성 있게 서술하여야 한다.

대체로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우리 당 력사의 연구 대상에 포괄해야 하며 또 이러한 문제와 관계 없는 것들은 거기서 걷어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당 력사 집필 요강을 재정리하고 더 심화하여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우리 당 력사 연구에서 무엇을 연구하겠는가, 우리 당 력사를 연구하며 가르치는 동지들이 무엇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대체 이상과 같다.

다음으로 우리 당 력사를 어떻게 연구하겠는가 하는 문제 즉 당사 연구의 방법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 당 력사를 연구하는 방법론적 기초는 두말할 것도 없이 력사적 유물론이다. 이것은 모든 사건 ――물론 력사적 사건을 말한다――과 사실들을 력사적으로, 그것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구체적 호상 련계와 호상 의존성 속에서 연구하며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사건과 사실들을 고립시켜 그것을 고정 불변한 것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과정에서, 호상 련계와 호상 제약 속에서 력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력사적 사건과 사실들을 엄격히 과학적 견지에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인 력사적 련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력사에서 일정한 현상, 사건 혹은 사실들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또 이 현상이 어떠한 중요한 계단을 거쳐서 발전하였으며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극단한 례로서, 같은 페지에서도 전후의 련계가 없고 읽는 사람의 사고를 중단시키게 하며 머리를 혼동시킨다면 그 책은 잘 씌인 책으로는 될 수 없다.

과거나 현재의 사건과 사실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력사주의적 원칙이 당성의 원칙과 결부될 것을 요구한다. 력사 과학에서 당성의 원칙은 엄격한 과학성의 최고 표현이다. 이 원칙을 견지함으로써만 력사적 발전의 전 행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력사적 사건의 본질에 깊이 파고 들어 갈 수 있으며 그 사건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주되는 것과 부차적인 것을 갈라 놓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력사의 기본 줄거리를 틀어 쥘 수 있다.

당 력사 연구에서 우리가 말하는 당성의 원칙――이것은 어떠한 력사적 사건과 사실을 평가하는 데서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와 당의 립장에 서야 할 것을 요구하며 사소한 기회주의적, 부르죠아적 편향과 표현에 대하여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의 력사, 우리 당의 성장과 발전은 당내외의 온갖 적대적 요소들, 기회주의, 종파주의의 편향들과 치렬하게 진행된 당의 투쟁 과정으로서 연구되여야 하며 서술되여야 한다. 온갖 적대적 요소들과의 투쟁 속에서 당이 성장하며 발전하며 공고화되는 것은 당의 발전에서 한 개의 합법칙성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것이 당 력사의 연구와 서술에서 기본 흐름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력사는 거저 무사하게 아무 투쟁도 없이 발전한 력사가 아니며 책상 우에서 고안해낸 그런 력사가 아니다.

우리 당 활동의 모든 측면 즉 리론적, 정치적 및 조직적 측면들에 대하여 광범한 력사적 견지에서 연구하며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혁명은 그것을 낳은 계급적 모순의 첨예성이 성숙됨에 따라 발전한다. 레닌의 이 명제가 우리 당 력사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해당한 력사적 시기의 사회 경제적 제 관계, 계급적 모순 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당 활동에 대한 해당한 평가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우리 당의 력사는 조선에서 로동 계급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창건되였으며 외래 침략 세력과 그리고 또한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에 대한 우리 인민 대중의 적대적 모순이 기본으로 되여 전개된 혁명 투쟁을 우리 당이 지도하였으며 이 투쟁 속에서 우리 당이 단련되고 성장한 그러한 력사이다.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공식, 기성 명제들을 가지고 우리 력사를 오려 맞추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표본으로 되는 것은 리 청원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항간에서 돌아 가는 말대로 표현한다면 가위와 풀로써 력사를 쓰고 있다. 그렇게 력사를 쓴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이다. 기존 공식, 기존 명제가 력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력사적 사실 자체에서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명제가 나와야 하며 평가가 나와야 한다.

당 력사와 직접 결부되지는 않는 문제지만 조선에서의 노예 소유자적 사회의 유무에 대한 토론을 놓고 말하여 보자. 우리 나라에 노예 소유자적 사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토론에 부쳐 놓고는 별로 토론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력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여 쓴 조선 통사는 노예 소유자적 사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히지 못한 채로 씌여졌다. 우리 나라에 노예 소유자적 사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는 구라파에서 어떤 민족이 이미 봉건 사회로 발전하는 앞선 민족들을 만나 원시 공동체 제도로부터 곧 봉건 사회로 이행하였다는 실례를 들면서 조선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하고도 황당한 론거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4,000년 이상의 력사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 나라의 력사를 흐리게 하고 있다.

구라파 력사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우리가 자기 력사 서술에서 주체를 잃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력사를 연구하여서는 안 된다.

좌우간 조선에서의 노예 소유자적 사회의 유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상 토론을 전개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당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다.

당 력사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적 토대, 풍부한 력사적 자료가 요구된다. 물론 력사 서술에서 이러한 사료들을 기계적으로 라렬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력사적 자료를 전면적으로 연구한 기초 우에서 력사적 사실들 호상 간의 합법칙적인 련계를 발견하며 모든 우연적인 것을 제거하고 사건들을 발전의 견지에서 고찰하는 변증법적 방법이 결부되여야 한다. 이러한 태도로써만 력사적 제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 개괄과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력사학계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 력사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일 아파하며 곤난하게 여기는 것은 사료학적 토대의 빈약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 력사라는 과학 부문이 창건된지가 오래지 않으며 과학적 유산도 별로 없으며 또 이것을 연구하는 우리 자신들이 모두 청소한만큼 힘을 합쳐서 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이 결함을 우리가 옳게 인식하여야 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기본적인 불평도 사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였다.

그러나 누가 해 주려니 하고 서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에 있는 동무들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료를 자꾸 내라고 요구만 하여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중앙에서도 내고 지방에서도 내고 함께 얻어내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없는 밑천은 서로 찾아내고 정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당 력사에 관한 서적들의 제일 큰 부족점으로 되여 있는 것은 바로 사료학적 토대의 빈약과 론거의 부족이 두 가지다. 금번 토론된 당 력사 집필 요강(명칭은 전개된 요강이라고 되여 있으나 아직 채 전개되지 못하였다)에 따라 잘 쓰면 아주 훌륭한 당사가 나올 수 있고 또 잘못 쓰면 멀멀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거기서 호랑이가 나오겠는지 토끼가 나오겠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 불만으로 되는 것은 역시 우에서 지적한 이 두 가지 결함이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계속 꾸준히 축적해 나가야 하며 연구를 거듭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당의 사상적, 조직적 및 전략 전술적 제 원칙을 반드시 그 발전 과정에서 연구하며 서술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의 이 모든 원칙들은 처음에는 덜 성숙된 것으로, 덜 완성된 것으로서 발생한 다음 그것이 혁명 투쟁을 통해서 점차 풍부화되고 발전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거저 한 번 제기되면 100% 완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말할 수 없게 되여서는 곤난하다. 어디까지나 력사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년대나 혹은 30년대 혹은 40년대 초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오늘의 우리의 수준에서 요구할 수 없다. 우리 당의 력사, 당의 리론적, 조직적, 전략 전술적 문제들——이 모든 것을 처음에 어린 시절로부터 차츰 나이가 들어 셈이 들고 점점 세상 물계를 알면서 자라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아야 한다.

한 번 정해 놓으면 누구든지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력사주의적 견지와는 배치된다. 우리 당 활동의 제 원칙들은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투쟁을 통해서 점차 풍부화되여 가며 동시에 다른 나라 당들의 경험을 배우면서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매 력사적 시기, 그 시기의 력사적 사실들을 연구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무엇이 문제로 되였는가를 총체적으로, 다방면적으로 파악하고 그 진수를 파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당 학교 강의 속기록이나 그보다 좀 나은 당 력사 집필 요강이나 다 이 점에서 대단히 빈약하다. 하늘천 따지 가믈현 누르황 식으로 줄줄 내려 오다나니 도대체 그 시기에 무엇이 문제로 되였는지 무엇을 해결하자고 당이 달라 붙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사촌도 삼촌 같고, 삼촌은 외삼촌 같이 보이게 된다.

당 력사는 력사 기록과 엄격히 구별되여야 한다. 해방이 되고 공산당이 창건되고 모쓰크바 삼상 회의가 열리고 토지 개혁이 실시되고 장안파가 나오고 박 헌영이가 당을 반대하고 하는 식으로 써 내려 간다면 이것은 력사 기록이며 한갖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 것인지, 달라는 것인지, 주겠다는 것인지 똑똑치 않다.

동무들! 우리 당 력사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혁명이 고조될 때에는 그에 해당한 전략 전술이 있었고 혁명이 저조일 때에는 그에 해당한 갖은 곤난과 곡절을 우리 당이 겪었다. 승리할 적도 있고 실패할 적도 있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발전하고 단련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당 발전에서의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이것은 우리 당 력사 서술에서의 생명이다. 사료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가 그 력사적 사건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참가한 사람의 기록과 기타의 모든 사료들을 통하여 당사 집필자는 그 당시의 모든 정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그 시기에 무엇이 문제로 되였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료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식적 방법이나 도식적 방법은 아주 금물이다. 당 문헌이나 보고서나 혹은 결정서 그리고 당 회의 내용을 년대 순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서술하면 그것은 당 력사가 아니다. 우리 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은 성공도 실패도 있는, 우여곡절과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온 그런 길이라는 것이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순풍에 돛을 달고 지금까지 지나 온 것으로 묘사하여 가지고서는 우리들 자체에도 교양이 안 되고 후대도 교양할 수 없다.

당 력사 집필 요강을 읽고 또 거기에 근거하여 진행된 토론회에 참가하여 얻은 당 력사 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문제들에 관한 우리들의 의견은 대체 이상과 같다.

동시에 이것은 당 력사 집필 요강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결함들에 대한 지적으로도 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참고로 될 것이 있다면 여러 동무들이 자기 토론에서 제기한 의견들과 함께 앞으로 집필 요강을 정리할 때 참작하면 좋겠다.

2

다음으로 당 력사 집필 요강 내용과 관련되는 몇 가지 구체적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20년대 30년대 40년대 혁명 운동, 남조선에서의 인민들의 투쟁에서 우리가 신중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혁명적 군중들의 진출과 폭동 혹은 기타의 사건들에 관하여 우리가 맑스—레닌주의적 태도로써 대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루루이 설명하는 것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군중의 혁명 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겠다. 물론 그 사건의 내용과 성격은 같지 않지만, 맑스가 파리 콤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상기시키고저 한다.

파리 콤뮨이 성립되기 전 1870년 9월에 맑스는 불란서 무산 계급이 직면한 국내외의 곤난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프로씨야 군대가 파리 성문 어구에 다달은 형편에서 파리 로동자들은 지나치게 일찌기 봉기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맑스의 말대로 하면 바로 적들이 파리 성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때 신정부를 전복하려는 모든 기도는 절망적인 망동이였다. 이것은 맑스주의 창시자가 혁명의 싹, 혁명 력량의 축적을 옹호하는 옳은 태도였으며 혁명이 일어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라는 옳은 권고였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정세가 새로 발전되고 계급 투쟁의 추세에 따라서 파리 무산 계급이 더욱 영웅하게 봉기하였을 때에 맑스는 이 봉기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나섰으며 그에 참가하였다.

레닌의 말을 빈다면 맑스는 무한한 열정과 희열로써 한 수의 진실한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 1871년 4월 12일에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떠한 자기 희생의 능력이 이 파리 사람들에게 있었던가! 외적에 의해서라기보다 훨씬 더 내부에서의 변절에 의해서 야기된 6개월 간의 기아와 령락 이후 그들은 프로씨야의 총검 밑에서 봉기하고 있다. 마치 불란서와 독일 사이에 전쟁이나 없었던 듯이, 마치 적이 아직 파리의 문앞에 다닫지 않은 듯이! 력사는 아직 이러한 영웅주의의 실례를 모른다!… 하여튼 지금의 파리 폭동은——그것이 낡은 사회의 승냥이들과 돼지들과 비렬한 개들에 의하여 진압되는 경우에 있어서조차——6월 폭동 이래의 우리 당의 가장 영광스러운 공적이다》(《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1955년, 조선문 판, Ⅱ (2), 252~253페지).

혁명에 대하여, 로동자들의 진출에 대하여, 인민들의 봉기에 대하여 맑스는 그것이 실패의 운명에 있을 때일지언정 이와 같이 옹호했고 지지했고 또 그에 적극 참가하였다.

동시에 맑스는 무산 계급 혁명가의 솔직성으로서 파리 콤뮨 지도자들의 착오를 비판하였다. 중요하게는 국민 자위군 중앙 위원회가 너무 일찌기 자기 권력을 포기하였으며 콤뮨의 적들에 대하여 지나친 《관대》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다.

혁명 운동에 대한, 군중 운동에 대한, 군중의 진출에 대한 맑스의 태도에서 그리고 무산 계급 혁명가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립각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 나라의 력사나 우리 당 력사에서도 이와 류사한 문제들과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 이에 어떻게 대하여야 옳겠는가, 맑스가 한 대로 맑스가 가르친 대로 해야 옳다. 지난 해에 소집되였던 력사가들의 협의회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많이 론의하였으며 배웠다.

당 력사 집필 요강의 첫 부분에 대하여 말한다면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제국주의와 봉건을 반대하는 시기를 서술함에 있어서 혁명 력사의 계승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서 서술해야 한다.

19세기 말 개항 전후 시기——자본주의가 쓸어 들어 와서 봉건 사회가 해체되고 계급 분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비록 제약되고 눌리고 짓밟히는 형편이였지만 근대적 공업이 생겨나고 로동 계급이 생겨나는 시기, 모 택동 동지의 표현 대로 한다면 구민주주의 시기, 말하자면 프로레타리아트가 정치 무대에 나서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의 선두에 진출하기 전 시기—— 이 시기가 개괄적으로 좀 더 똑똑히 서술될 필요가 있다.

조선 로동 계급의 발생 발전 과정은 조선이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로 전락되여 인민들이 외래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과 긴밀히 결부되여 있다는 것을 서술하여야 한다.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사상 단체》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아무에게나 마음이 흡족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우리 생각에는 토론한 동무들이 대체로 문제를 옳게 제기했다고 본다. 더 연구하고 토론하여 볼 여지는 있으나 대체로 서울 및 기타 지방들에서 발생한 초기의 일부 《사상 단체》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옳다는 동무들의 의견들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25년의 조선 공산당의 창립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 운동과 맑스—레닌주의가 서로 결합되여 이루어진 합법칙적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20년대의 조선 공산당이나 로동 계급이 아직 자기의 유년 시대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데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창건된 당은 아직 어렸으며 불가피하게 력사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의 혁명 선배들과 선렬들이 하여 놓은 사업에 대하여 지나친 요구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혁명에서 그들이 논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응당 이야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우리들은 무산 계급 혁명가의 솔직성으로서 그들의 결함에 대하여 비판하여야 한다. 발전되고 성숙된 오늘의 우리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요구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1960년대에 사는 사람들이 1925년의 조선 공산당에 대하여 너는 어째 똑똑하지 못하였느냐, 왜 오늘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철저하지 못하였느냐 하고 추궁만 할 수 있겠는가?

유년 시대에 불가피하게 내포하였던 여러 가지 결함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그 운동, 당시의 그 당, 당시의 그 모든 투쟁에 대하여 역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유산으로, 자기의 지난 날로서 적극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당시 당내에는 협잡'군들도 많이 끼워서 유린도 당하였으나 투쟁은 간고하였다. 그 투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것으로 취급되여야 한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객관주의적인 제 3자적인 립장은 버려야 한다.

1920년대 공산주의 운동의 특징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이, 처음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로동 계급 속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대중들이 그 학설을 점차적으로 파악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식민지의 조건하에서,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 밑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고 그것이 아주 어려운 투쟁 과정에서 일제의 야만적 탄압과 당 지도부에 기여든 종파'군들의 해독 행위로 말미암아 1928년에 해산되여 여기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뼈에 사무친 교훈을 찾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당으로부터의 도움도 있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자들 속으로, 농민들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 갔다. 행세식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이 때에 혁명에서 리탈하였으며 많은 종파'군들이 변절하여 적들의 측으로 넘어 갔다.

그러나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해산에서 심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혁명이 요구한 대로 또한 국제당에서 제기한 정당한 방침 대로 대중 속으로 들어 갔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걸쳐 우리 나라에서 혁명 운동은 고조되였다. 이것은 적들이 대륙 침략을 위하여 《후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혁명 력량에 대하여 대량적인 숙청과 야만적 탄압을 감행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혁명은 고조되여 적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로동자와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1930년대는 우리 당 력사, 우리 혁명 력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20년대는 우리가 아직 어리고 이것 저것 해보면서 차츰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30년대는 전면적으로 맑스—레닌주의가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과거 력사에 없었던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빛나는, 자랑스러운 시기 그러나 제일 어려운 시기이다.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공산주의자들이 대중 속에 들어 갔으며 대중들은 일제의 착취와 억압에 못 견디여 그를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다.

적들이 대륙 침략을 준비하면서 극도로 야만적인 탄압을 가하여 오는 데 대하여, 말하자면 무장한 적이 무장으로 혁명 력량을 탄압하는 데 대하여, 인민들이 폭동으로, 주먹으로, 무력으로 반항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였다.

20년대로부터 30년대로 넘어 오는 우리 혁명 력사에서의 이 계승성에 대하여 똑똑히 서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당 력사를 연구하는 일부 동무들이 30년대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20년대를 되도록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옳지 않은 태도는 력사주의적 원칙이나 당성 원칙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옳지 않은 태도이다.

혁명 력사에서 계승성에 대한 문제, 우리 혁명의 유산과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도 동요해서는 안 된다.

30년대에 왜 무장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였는가, 여기에 어떠한 합법칙성이 있었는가를 옳게 해명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운동이 대중 속에 들어 가 대중을 파악하였으며 대중의 혁명 기세가 높아질 때 적들은 이를 무력으로써 탄압하였다.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으로 탄압하는 적을 무력으로 쳤다.

운동 발전의 이러한 계승성과 합법칙성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모여 앉아 《유격대를 조직하고 항일 무장 투쟁을 하자》 하는 식으로 서술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력사주의적 서술 방법이 아니다.

당 력사 교재 집필 요강의 30년대 이후 혁명 투쟁의 부분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이 시기에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 과정을 전국적 판도에서 전 조선 혁명 운동의 줄거리를 들어 쥐고 서술하지 못한 데 있다.

여기에는 아직도 최 창익과 그 졸도들이 《국내 투쟁》, 《국외 투쟁》하면서 우리의 혁명 투쟁을 인공적으로 분리시키고 서로 대립시키며 그리하여 종파'군들의 《업적》을 더 내세울 목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은 국외의 것이고 국내에서는 딴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들이 투쟁했다는 식으로 써 온 그 여독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들의 진출이 전라도에서 있었건, 함경도에서 있었건 혹은 경기도에서 일어났건 간에 그것은 직접 간접으로 김 일성 동지의 항일 빨찌산 투쟁의 영향과 지도하에 일어난 것이다. 30년대 혁명의 총 본부가 여기 항일 빨찌산 부대에 있었으며 그것은 김 일성 동지가 지도하였다.

그러면 왜 만주에서 당시의 말대로 하면 북간도에서 조선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을 일으켰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은 물론 만주도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었으며 다같이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주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반이 가장 약한 곳이였다. 그 곳에서는 장 작림과 같은 머저리 군벌이 통치하고 있었으며 독립군이 활동하던 토대가 있었다.

북간도를 위주로 이 지방에 거주한 100만이 넘는 조선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과거 조선에서 일제의 착취와 억압에 못 견디여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곳으로 살'길을 찾아 온 사람들이며 이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강한 혁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들에게 있어서 이 지방이 가장 약한 고리였던 반면에 혁명적 군중들이 이렇게 집결될 수 있었던 특성은 이 간도 지방과 만주 일대로 하여금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한 가장 유리한 지대로 되게 하였다. 여기서 항일 빨찌산들이 조선 혁명을 전국적 규모에서 지도함에 있어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중간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은 아무러한 장애로도 될 수 없었다. 물론 적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의 국경선을 《철통》같이 봉쇄하였고 날아 다니는 새도 얼씬 못한다고 호언 장담하였지만 우리 항일 유격 부대들과 비밀 공작원들의 래왕과 련계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나 중국 공산주의자나 다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동의 원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투쟁 무대,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공동의 원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 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단결하였으며 그들의 령도하에 두 나라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국제주의적 단결의 산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30년대에 들어 서면서 맑스—레닌주의가 조선 근로 대중 속에서 파악되고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령도 핵심이 생겨났으며 그 선두에 김 일성 동지가 서 있었으며 그의 지도하에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무장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것은 당시 전국적인 조선 혁명 투쟁의 최고봉이였다. 김 일성 동지가 직접 령솔한 항일 무장 부대들과 그 휘하의 부대들은 함경 남북도, 량강도 등 북조선의 산간 지대에서 항상 적들과 격렬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전국 각지의 지하 조직을 통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 련계를 통하여 대중들의 혁명 투쟁을 지도하였다.

우리 생각에는 30년대 이후의 항일 혁명 투쟁을 이렇게 취급해야만 옳다고 본다. 그런데 최 창익은 30년대 투쟁을 어떻게 썼는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한 끝에 만주에서도 김 일성 동지가 무장 투쟁을 하였다라고 한다. 게다가 관내에서 독립 동맹 의용군 등이 활동하였다고 하면서 딱 《동격》에 놓자고 한다. 이것이 모두 무슨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에 걸려 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30년대 투쟁을 통일적으로 총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장악하여야 한다. 집필 요강에 국내에서의(요강에서의 표현대로 하면) 로동 운동, 농민 운동, 학생 운동이 매우 적게 취급된 것은 이 요강이 가지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당시 똑똑치 못한 신문들이였지만 《동아 일보》, 《조선 일보》들을 펼쳐 보라. 무엇이 그때 문제로 되였던가? 바로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항일 무장 투쟁이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 당시 조선 혁명에서 적아 간에, 조선 혁명 력량과 일본 제국주의 반동 세력 사이의 싸움에서 그 초점은 항일 무장 투쟁에 집중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당시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던 륙군의 주력을 우리 인민 혁명군과의 작전에 투입하였고, 당시 조선에서의 일본 경찰의 정예를 항일 유격 부대와 그 혁명 조직의 파괴를 위하여 동원하였다. 심지어 혁명의 변절자들까지 각지에서 걷어모아 우리 항일 무장 부대를 반대하는 암해 책동에 쓸어 넣었다. 그러나 이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도처에서 로동자, 농민들이 일어났으며 학생들이 일어났다. 그 영향하에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감옥에서 계속 투쟁하였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는 30년대 항일 혁명 투쟁을 이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930년대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파악하고 이것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와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적 기초가 이룩되였다. 과거 20년대에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문제로서는 리론과 실천의 결합 문제, 군중과의 련계 문제, 군중적 사업 방법, 사업 작풍 등 군중 로선의 문제,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 각 계층과의 통일 전선에 대한 문제,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 등이다. 우리 당 활동에서 기본을 이루는 이러한 문제들이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그 해결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루고 있다.

우리 당의 력사는 응당 여기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 서술에서 이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시기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느 해 어느 곳에서 전투가 벌려졌고 언제 어디서 무슨 회의가 있었고 하는 식으로 내려 쓰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김 일성 동지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개별적 전투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 사상적 문제, 리론적 문제를 옳게 취급하는 것이다.

당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대를 잡아 놓은 데 대하여, 이 유산에 대하여, 이 밑천에 대하여 반드시 연구하고 서술해야 한다.

해방 후 부분의 서술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다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방법론상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족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해방 후 15년 동안에 있은 많은 일들을 그저 줄줄 내려 쓰기만 하니, 도대체 그 시기에 어떠한 력사적 곡절이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였고 그것을 당이 어떻게 풀자고 하였는지, 어떠한 경향들과의 투쟁 속에서 당의 정책이 승리하였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

해방 후 시기에 들어 와서는 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내놓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덜 노력한 데 원인이 있다.

해방 후 시기 당 력사 연구에서 사료를 옳게 과학적으로 료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로 말하려 한다.

해방 후 우리 당은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룩한 혁명 전통을 우리가 넘겨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고질로 되여 있은 종파주의, 기회주의의 보따리도 넘겨 받았다.

이것이 해방 후 우리 당이 당 외의 적과도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였지만 특히 당 내부 생활에서, 당 건설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간고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력사적 근원이다.

만일 1928년에 공산당이 해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였다면, 내부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레닌적인 당을 가지고 해방을 맞이하였더라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종파 문제에 대하여서나 혁명의 리론적 전략 전술적 문제들에서 나타난 옳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총화한 일도 없이, 좋은 문서들과 함께 나쁜 문서들도 모조리 가지고 해방을 맞이하였다. 박 헌영의 문서, 최 창익의 문서, 리 영의 문서 또는 이런 저런 잡탈 저런 잡탈들의 모든 문서들을 그냥 그대로 넘겨 받았다.

이로부터 해방 후 우리 당 건설에서 《어째서 그렇게 복잡》하였는가 하는 의문 즉 어째서 오늘은 박 헌영이 나오고 래일은 허 가이가 나오고 또 다음에는 최 창익 등등이 나왔는가 하는 의문들이 해명된다. 이 넘겨 받은 문서들은 해방 후에 해결하여야 하였으니 그것은 복잡하고도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우리 당 발전에서 합법칙적 현상이다.

다음으로 김 일성 동지가 항상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우리의 공산주의적 핵심들, 공산주의적 그룹, 광주리가 적었다는 사정을 지적하여야 한다. 불안간 몇 천 명, 몇 만 명도 아니고 몇 십만의 로동 계급, 농민, 인테리 가운데서 우리 당 강령을 지지하는 선진 분자들을 대중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였는데 그에 비한다면 단련된 공산주의 핵심들이 적었다. 해방 전부터 당이 있어서 원래 그 뒤가 든든하고 그 광주리가 커서 무엇이 들어 오든 다 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당이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건설되게 된 력사적 원인들이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걸으면서도 발전하고 공고화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였는가.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과 그의 영향하에 자라난 공산주의 령도 핵심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여 형성되였으며 그의 령도하에 당이 건설되였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 투쟁 과정에서 인민들이 우러러 받들고 신임하며 절대로 지지하는 검열된 혁명의 지도자 김 일성 동지와 그의 령도하에 뭉친 공산주의적 핵심들을 가지지 못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인 박 헌영, 최 창익, 허 가이 도당들에 의하여 당이 어떻게 되였겠는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해방 후 우리 혁명의 발전이 아무 곡절도 없이 나가게끔 미리 결정되여 있은 것도 아니다. 우리 당이 녹으면 우리 혁명도 녹는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령도 핵심을 떠나서 우리 당 건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암담하다.

누구를 믿어야 옳으며 누구를 따라야 하였는가.

박 헌영은 남조선에서 벌써 당을 미국놈들에게 팔아 먹었으며 최 창익, 김 두봉, 한 빈 등은 해방 직후부터 미국놈들과 결탁하였고 오 기섭, 장 시우, 주 녕하, 리 주하, 장 순명, 최 경덕 등의 야심군들이 각 도에 들어앉아 제멋 대로 행동하였다.

무슨 힘으로 분산된 력량을 묶어 세웠으며 무슨 힘으로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소화하며 무슨 힘으로 공산주의 혁명의 앞길을 밝힐 수 있었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당 력사를 그저 순풍에 돛을 달고 술술 지나 간 것으로 서술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해방되자 조선은 분렬되였다.

이것은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 건설에도 그 흔적을 남기였으며 우리 혁명 발전의 전망에도 커다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종파'군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노리였는가? 그들은 나라의 이 분렬을 리용하려고 꾀하였다. 박 헌영은 분렬을 리용하여 미국놈의 비호하에 남조선에서 당의 지도적 지위에 잠입하여 많은 해독 행위를 감행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많은 종파 분자들은 나라의 분렬을 리용하여 서울에 등을 대고 우리 당에 많은 애를 먹였다.

한 빈은 1946년 초에 남조선에서 우리 당 대회를 준비할 데 대한 당 지도부의 임무를 가지고 나갔으나 이것을 거역하고 미국놈들과 련계를 맺었다. 형편은 이렇게 복잡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비록 력사는 짧고 일'군들은 젊었으나 혁명하는 데 있어서는 로숙하다. 우리 당을 전복하려던 모든 것들과의 투쟁 속에서 당은 시달렸으며 단련되고 세련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화력을 우리 당에 집중하였다.

그것은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꾸리고 그 주위에 혁명적 력량이 집결된다면 자기들이 조선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였다. 적들은 무력까지 사용하여 침공하였으나 당은 살았고 장성했고 강화됐고 조선 혁명과 조선의 장래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힘으로 되였다.

당이 장성하며 발전하여 오늘 강력한 당으로 된 것은 오직 오랜 혁명 과정에서 단련된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 즉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솜씨, 그의 완강한 혁명적 강의성과 위대한 혁명적 전개력, 사람들을 묶어 세우는 덕성,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 동방에서 우리 당도 형제 당들과 같이 믿음직한 공산주의의 한 부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우리 당 력사에서와 당의 건설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 령도 핵심이 논 위대한 역할을 서술하는 것이 아직 불만족하다.

집필 요강에서와 같이 빈말로써 그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매 력사적 시기에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되였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당 중앙 위원회가 어떠한 현명한 방침과 대책들을 발기하였으며 그의 령도하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결말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 사업들과 결부시켜 서술하여야 한다.

해방 후 15년 간 우리 당 력사와 당 건설에서 어떠한 합법칙적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시기는 우리 당이 해방 후 다시 건설되면서 당내에서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이 장성하며 발전하는 과정이요, 그의 령도가 당에서 완전히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력사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제 3차 당 대회, 제 1차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완성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되였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지배적인 령도가 확립되여 가는 과정은 제 3차 당 대회와 제 1차 당 대표자회로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김 일성 동지의 그 확고한 위신과 탁월한 혁명가적 수완이 없었다면 과거의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정치 위원회는 혁명 운동에 대한 당 중앙의 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지난 시기 당 중앙 지도부에 끼여 든 종파'군들은 어느 한 시각에도 김 일성 동지가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령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도운 적이 없었다. 베개는 같은 베개를 베였으나 꿈은 제각기 딴 꿈을 꾸고 있었다. 어떤 놈은 서울 꿈을 꾸는가 하면 어떤 놈은 미국 꿈을 꾸고 있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이 자들은 극악한 배신적 행위들을 감행했다. 만일 과거 15년 간의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몇 천, 몇 만배되는 적들과 싸워 이긴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의지, 그러한 혁명적 견인성과 완강한 혁명적 품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전쟁에서 어떻게 되였겠는가. 여기에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종파'군들은 후퇴의 어려운 시기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뒤로 뺑소니 칠 생각만 하면서 기여 다니였으며 정세가 변천되여 날이 좀 따뜻해지니 다시 기여 나와 이것 저것 먹어 보려고 슬렁슬렁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 이러한 자들을 당내에 포섭하고 지어는 지도부에까지 등용하면서 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혁명 과정에서 접열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단결도 혁명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되여 첫날부터 이 자들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었다.

종파'군들을 반대하는 투쟁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은 확고하게 장성하고 강화되였다.

이 과정은 동시에 당내에서 온갖 기회주의, 종파주의 기타 모든 적대적 요소와 경향들을 청산하고 전 당을 확고하게 레닌적 제 원칙에 근거하여 건설하는 과정이였다.

우리는 부르조아, 소부르조아 혹은 다른 계급의 어떠한 당들과도 구별되는 레닌적인 당이다. 우리 당의 특색은 그것이 전투적 당이라는 데 있다.

우리 당은 국회 선거를 위한 당도 아니며 부르조아 정권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당도 아니다.

우리 당은 오직 혁명을 위한 당이며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리익과 의지를 대표하며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전투적 당이다.

낡은 것을 마사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며 혁명의 원쑤를 치고 로동 계급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완전한 통일, 절대적인 통일을 요구한다. 절대적인 통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한 전 당의 결속, 고도의 조직성,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 강철같은 규률, 국제주의적 단결——이러한 원칙 우에서 단합된 당이다.

오늘 우리 로동 계급은,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령도되는 이러한 당을 가졌다는 것을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계속되는 혁명 투쟁 과정에서 우리 인민이, 우리 로동 계급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얻은 가장 고귀한 전취물은 오늘의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당이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김 상 학

1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확립은 한편에 있어서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승리에 의하여 보장되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물질—생산적 기초의 확고한 구축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대한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유일한 물질—생산적 기초로 될 수 있는 것은 공업 자체와 농촌 경리도 포함하여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보장할 수 있는 대기계 공업이다. 바로 선진 기술로 장비된 대기계 공업은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을 위한 물질적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확립에 관한 이와 같은 합법칙성은 자본주의 시기에 발전된 현대적 공업을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객관적 요구로 되며 생산력 발전의 필연적인 단계로 된다는 사실을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 당은 해방 이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현대적 대기계 공업을 창설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을 실현하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이며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삼았다.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업을 창설 발전시킴에 있어서 항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일반적 합법칙성과 특히는 사회주의 공업화에 관한 레닌적 리론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그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 인민은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이미 사회주의 공업을 창설하였으며 그 생산을 복구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하는 문제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제기되였다.

정전 직후 우리 당이 제시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당의 총 로선은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함께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기본적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은 기본적으로 복구 시기였으나 그것은 단순한 복구 시기가 아니였다. 이 기간에 공업 생산 수준은 전쟁전 수준을 1.8배 이상으로 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중공업 기지가 개건 확장되였으며 공업에서의 기술적 토대는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부분적으로 축성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것——이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첫 시기의 과업이였다.

공업화의 첫 시기에 이러한 과업이 수행되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수행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가 과거 일제 시기로부터 공업 생산력의 락후성과 식민지적 편파성을 물려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공업화의 첫 시기에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는 과업은 기본적으로 복구 시기인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해결되였다. 그러나 복구 시기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첫 시기의 과업을 부분적으로 병행하여 해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및 상품 류통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이 때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였으나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는 아직 미약》(《모든 것을 조국의 통일 발전을 위하여》)하였다.

인민 경제의 전체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 그 때에 공업 부문에서의 기술적 개건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농촌 경리에서 현대적 기계 기술의 도입은 미약한 것이였다. 또한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위한 기술 인재 문제도 그의 기초를 닦은 데 불과하였다. 력사적으로 물려 받았던 나라의 생산력의 락후성은 아직 완전히 퇴치되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은 사회주의 사회에 충분히 상응하는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승리한 조건에서 아직 미약한 사회주의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는 과업——사회주의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촉진시키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사회주의 건설과 특히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에서 제기되는 이 중요한 력사적 과업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중심적 문제로 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기로 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부분적으로는 복구의 과업이 남아 있었지만 인민 경제는 이미 기술적 개건기에 들어 섰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제 1차 5개년 계획은 공업 총 생산액적으로 2년 반 앞당겨 초과 수행되였다. 1959년도의 공업 총 생산액은 1956년도에 비하여 3.1배에 달하였으며 전쟁 전 수준을 6.1배로, 1944년도 수준을 6.6배로 릉가하게 되였다.

공업 분야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인민 경제의 면모와 그의 질적 구성은 근본적으로 개변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이미 자립적인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공업 생산이 농업 생산을 현저히 릉가하게 되였으며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청산됨으로써 공업의 지도적 역할은 제고되고 그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적극적 방조, 인민 경제의 부문 간 및 공업 내부의 생산적 련계가 현저히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되는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는 과업은 해결되였으며 우리는 앞으로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더욱더 확대되는 대규모의 건설 사업과 기술적 개건을 완성하는 사업을 자체의 공업적 토대에 기초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1953년 8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제 3 단계의 과업, 《…우리 나라를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 국가로 만드는 우리 조국 공업화의 제 1 단계》(김 일성)의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결하였다.

2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방도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일반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공업화의 사회주의적 방법을 우리 나라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력사적, 경제적 및 자연적 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업 발전 수준과 공업 생산 구조의 구체적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화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의거하면서도 그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도에는 일정한 자기의 특성들이 있다.

그 특성은 첫째로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의 호상 관계에서와 중공업 발전의 중심 방향에서, 둘째로 공업화의 자금 원천에서와, 세째로 복구와 개건의 호상 관계에서 표현되였으며 끝으로 중요하게 공업화의 템포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이것은 기계 제작 공업을 중추 신경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의 발전을 그의 특성으로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명제들로부터 출발하여 전후 공업 복구 건설과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확고히 관철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과거 일제가 남겨 놓은 기형적인 중공업을 자립적인 중공업으로 재편성하며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기초로 될 강력한 자립적 중공업을 창설 강화하는 것은 제 1차적 과업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중공업의 창설과 그의 발전은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과 공업 생산 구조상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 수행과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 및 확대 재생산의 템포를 촉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전제를 조성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를 원래 일정한 토대가 있던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인정하였다.

전후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공업 기업소들이 대대적으로 복구 확장되였으며 새로운 현대적 중공업 기업소들이 광범히 신설되였다. 전쟁에 의하여 심대한 피해를 입었던 발전소들은 완전히 복구되고 일부 대규모 수력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장들과 화학 비료 공장, 쎄멘트 공장들이 복구 확장되였을 뿐만 아니라 광범히 신설되였다.

특히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가 창설되였다.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공업 부문별 구조상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립적 사회주의 공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당은 최근 년간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각종 기계 설비들과 부속품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특수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보장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오늘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과 관련하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중 소 기계 설비들과 부속품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하여 해결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 자동차, 뜨락또르 및 엑쓰까와또르 등 일부 현대적인 대형 기계 설비들에 대하여서도 그의 대량적 생산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최근 시기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대책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이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창발성에 기초하여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을 최단 시일 내에 새로운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로 끌어 올리며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창조적 대책이였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궐기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1959년 한 해 동안 계획 외에 1만 3천여대의 새로운 공작 기계들을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1959년도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총 생산액은 1946년도에 비하여 실로 80배 이상에 달하게 되였으며 공업 총 생산액 중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4년의 1.6%로부터 1949년에 8.1%, 1958년에는 16.6%에 달하였으며 1959년에는 그의 비중이 훨씬 제고되였다.

전후 시기에 중공업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였다.

그런데 우리 당은 나라의 공업화 행정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그를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서는 일련의 중요한 특성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첫째로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의 호상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둘째로 중공업 내부 구조상의 현저한 변화에서, 세째로 중공업 발전의 중심 방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이 경제 정책은 복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던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와 또한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킨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도 계속 관철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 공업 부문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장성

	1946년	1949년	1953년	1956년	1959년
《A》 그루빠	100	375	158	640	2,019
《Б》 그루빠	100	288	285	598	1,713
공업 총 생산액	100	337	216	615	1,906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이 취한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의 철저한 관철은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최단 시일 내에 안정 향상시켜야 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서의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전후 복구 사업을 끝마치고 우리 나라 자체의 힘에 의하여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였다.

전후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의 관철과 관련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현대적인 경공업 기지가 새로이 창설되였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경공업 부문은 중공업 부문에 비하여 비록 상대적으로 낮은 템포로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그의 생산 증대는 주로 신설과 확장에 의하여 보장되였으며 년 평균 28%의 높은 템포를 달성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방직 공업과 식료품 가공 및 일용품 공업 등 경공업 생산이 급속하게 발전되였다.

그 결과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방직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4년의 6%로부터 1949년에는 11.3%이던 것이 1958년에는 16.1%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은 우리 나라 공업에서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적 편파성의 한 측면이던 경공업의 락후성이 청산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은 나라의 공업화 행정에서 특히는 인민 소비품 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을 위하여 대규모 공장과 중 소 규모 공장,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발전을 병진시키며 현대적 기술과 함께 일부 수공업적 기술을 배합하여 리용할 데 대한 방침을 취하였다.

여기에 있어 우리 당이 취한 가장 창조적인 조치는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그것이였다.

1958년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켰다.

우리 당은 6월 전원 회의 이후 전국 각지에 새로이 창설된 지방 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우리 나라에 중앙 공업과 함께 튼튼한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 공업 생산액은 1958년에 비하여 1959년에 2.2배로 장성되였으며 소비품 생산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의 28%로부터 39%로 제고되였다.

지방 공업의 이와 같은 발전은 원료 자원과 로력 자원에 관한 지방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인민 소비품과 농촌 건설 자재의 급속한 생산 증대를 위하여 중요하게 기여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국가 자금을 대규모의 중공업 건설에 돌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케 하였다.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생산에 동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될 수 있는 지방적 원료 자재들과 유휴 로력 등 지방적 생산 예비를 적극 동원함으로써 소비재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였다.

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도 생산 수단 생산의 더욱 빠른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확고히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으며 나라의 공업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큰 기여로 되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전 시기에 걸쳐 계속 철저히 관철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의 이 경제 정책이 경제 발전의 매개 시기에 적용되는 구체적 형태와 내용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였다. 이 경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과 내용상에서는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와 또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에 상응하여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 3개년 계획과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 전후 경제 건설에 관한 당의 총 로선은 그가 실시되는 조건과 그가 해결해야 할 과업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첫째로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전체 인민 경제가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그러나 형제적 나라들로부터의 경제적 원조가 매우 큰 조건에서, 당의 이 총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최단 시일 내에 안정 향상시키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과업을 해결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비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당의 이 총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업은 인민 경제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제기되는 과업——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그것이였으며 우리는 복구기에 달성한 경제 건설의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국내 자체의 자금 원천에 의하여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둘째로 그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 서서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촌 경리 제 부문 간의 호상 련계가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강화 발전되였다는 사실이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촉진됨에 따라서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 공업의 지도적 역할, 특히는 중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는 우리 나라 자체의 중공업 기지에 의거하는 정도가 더욱 제고되고 전반적으로 이 부문들 간의 생산적 련계는 강화되였다.

세째로 그것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공업과 경공업 생산의 장성 템포가 아주 접근하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생산은 4.1배로, 경공업 생산은 2.1배로 장성하였다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생산은 근 3.2배로, 경공업 생산은 약 2.9배로 장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공업 생산 그 자체의 장성에 있어서나 중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비중에 있어서나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발전이 약화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것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부문에서의 생산 장성은 경공업 부문에 비하여 보다 많이 구시설의 복구에 의거하였다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중공업과 경공업 그 어느 부문에서도 주로 신설 확장에 의하여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게 되였으며 특히 중요하게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소비재 생산의 급속한 장성이 지방 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의하여 현저히 촉진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 서서 공업 건설 특히는 중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는 그 절대액에서 뿐만 아니라 그 비중상에서도 확고하게 증대하였다. 이것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당이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특히는 중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큰 력량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하여 준다.

기본 건설 투자의 부문별 비중 (%)

년도 / 구분	1954	1955	1956	1957	1958
기본 건설 총투자액 중 공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	43.2	51.4	53.6	57.9	54.6
공업 투자액 중 중공업의 비중	81	79	83	84	85
공업 투자액 중 경공업의 비중	19	21	17	16	15

우리의 공업화 행정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의 두 번째 특징은 중공업 내부 구조상의 변화에서 표현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업화 행정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생산 수단 일반을 생산하는 중공업의 높은 장성 템포만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공업화 행정에서는 생산 수단 생산 부류 중에서도 우선 로동 도구를 생산하는 생산 부문——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가장 빠른 장성이 요구되였으며 전체적으로 원료 및 반제품 생산에 편중되여 있던 중공업을 완제 가공 제품 생산에로 급속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요구되였다. 일제 시기에 북조선 지역의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은 실로 70% 이상에 달하고 있었으나 이 중공업 생산의 대부분이 원료 및 반제품들이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과업이 제기되는 력사적 근거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장성하는 중공업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공업화 행정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 생산의 전체 분야에 걸쳐 완제 가공 제품의 생산이 현저하게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에서는 광석 채굴업—야금 공업—기계 제작 공업 간에 있었던 식민지적 편파성도 기본적으로 퇴치되였으며 흑색 금속 공업 부문 내 품종별 구성상의 기형성도 청산되였다. 례컨대 북조선 지역에서 1944년도 광석 채굴업의 생산액을 100으로 할 때 야금 공업 생산은 84.7,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생산은 10에 불과하였다면 1958년도에 그 비률은 100~157~361로 변동되였으며 1944년도에 선철 생산액을 100으로 할 때 강철 생산은 30, 강재 생산은 불과 21.4였다면 1958년도에 그 비률은 역시 100~151~105로 변동되였다.

전후 시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이 기간에 우리 당이 취한 중공업 발전의 중심 방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웨. 이. 레닌은 맑스에 의하여 기초 지어진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경제 법칙으로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우리는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이 가장 급속하게 장성하며 그 다음에는 소비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이 장성하며 소비 수단의 생산이 가장 완만하게 장성하는 것을 본다≫(전집, 제 1권 1분책, 조선문 판, 130 페지).

우리 당은 레닌의 이 명제를 전후 시기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구체적 요구에 적응하게 적용하였다. 물론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확고하게 실현되면서 그 중 생산 수단을 위한 중공업 부문이 소비재를 위한 중공업 부문에 비하여 빠르게 발전되였다. 그것은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와 기술적 개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 발전의 중심 내용에 일정한 특이성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우선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직접 관련되는 중공업 부문들 즉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과 주택 건설을 위하여 요구되는 원료, 자재 및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들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래 인민 경제 발전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전후 시기에 급속하게 발전한 화학 공업, 흑색 금속 공업, 건재 공업 및 기계 제작 공업들은 우리 나라 실정에서 볼 때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노는 중공업 부문들이였다. 우리의 화학 공업은 화학 비료와 농약품 및 화학 섬유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재 공업은 도시와 농촌 건설을 위하여 다량의 쎄멘트와 벽돌을 공급하고 있으며 흑색 금속 공업은 관개 시설과 주택 건설을 위하여 각종 강재를 공급하였으며 기계 제작 공업에서는 각종 농기계, 뜨락또르, 어로용 선박, 방직 기계 및 관개용 기자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요구에 적응하게 중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 수단의 생산을 소비재 생산에 최대한으로 밀접히 련결시키면서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공업 발전의 이와 같은 방침은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뿐만 아니라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견지되였으며 특히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인민 생활 향상에 중심 력량을 돌리는 금년도 완충기에 있어서도 계속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 서서부터 당은 사회주의 공업화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이 전면적으로 실시됨과 관련하여 중공업 자체를 위한 기계 설비들의 생산을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보다 확대하는 제 대책을 취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이 취한 중공업 발전의 이와 같은 방침은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을 조성하며 그와 함께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대규모의 기본 건설 사업을 위한 생산력의 토대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되였다.

전후 시기 우리 당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정책의 철저한 관철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최 창익, 박 창옥 등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 공업화 정책의 기본인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전후 시기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철저한 관철에 의하여 달성된 빛나는 성과는 이미 당과 전체 인민에 의하여 폭로 분쇄된 이 자들의 허위성과 추악성을 더욱 명백히 밝혀 주고 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공업화 행정에서 공업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강화함과 함께 우리의 력사적, 경제적 및 자연적 제 조건을 신중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각종 생산 수단으로부터 인민 소비품에 이르기까지 국내 생산의 품종을 최대한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업 발전의 다면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립적 공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공업 발전의 다면성과 자립적 공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공업 부문별 구조상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제기되였으며 오늘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높은 템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과업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한 이것은 조국이 통일된 이후 우리 나라 경제의 장래 발전과 관련된 절실한 요구로 되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다면성을 가진 우리의 공업 발전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 체계의 우월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기술—경제적 협조와 방조가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성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있어 다종 다양하며 풍부한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은 공업의 이와 같은 발전을 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공업을 복구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사회주의 국제 분업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였다. 이 원칙의 옳바른 적용과 그의 강화는 우리의 경제적 자주성을 보장하며 나라의 공업화 행정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의 적용이 강화됨과 관련하여 대외 무역 총 류통액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바 1955년도에 비한 1957년도 대외 무역 류통액은 약 2배로 장성하였다.

우리 당은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가장 정확한 대책을 취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나라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기본 건설 투자액이 요구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업화에 요구되는 거액의 자금을 기본적으로 국내 자체의 내부 축적에 의하여 해결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공업에서 복구기가 완료되고 제 1차 5개년 계획 시기——공업화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시기에 들어 서면서 국내 자체의 자금 원천의 의의와 그가 노는 역할은 결정적으로 제고되였으며 이 기간에 실시된 대규모의 공업 건설을 위한 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 자체 축적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례컨대 국가 예산 수입 총액 중에서 대외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24.6%에 달하였던 것이 1957년도에는 12.2%, 1958년도 예산에서는 4.5%, 1959년도 예산에서는 2.7%로 격감되였다.

전후 시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거액의 기본 건설 자금이 요구되였는바 소비재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특히는 지방 공업의 전면적인 발전은 소비 상품 폰드의 공급 증대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공고한 자금 공급 원천을 보장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우리 당은 나라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막대한 자금을 해결함에 있어서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데 대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착취로부터 해방된 혁명적 근로 대중의 창조적 자각성에 기초한 생산 내부 예비의 최대한의 동원과 그의 리용은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의 구체적 조건에 상응하게 조성된 생산 내부 예비를 제때에 동원 리용하는 정확한 대책을 취하였으며 절약하여 증산하라는 당의 호소를 발

들고 헌신한 근로자들은 이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6년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전후 복구 건설에서의 획기적인 성과에 기초하여 조성된 생산 내부 예비를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앙양을 위한 전환점으로 되였다면, 1958년 6월 전원 회의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하여 지방적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하는 계기로 되였으며,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지난 시기에 인민 경제가 질풍과 같이 내달리는 행정에서 미처 동원 리용하지 못하였던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함으로써 완충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조치는 나라의 공업화 행정에서 요구되는 거액의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당은 우선 기존 기업소들의 복구와 그의 개건 확장에 선차적으로 힘을 돌리면서 새로운 기업소들의 건설을 이에 배합하였으며 건설에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고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며 주요 건설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된 현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원천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쏘련을 위시한 형제적 나라들로부터의 재정—경제적 원조가 적지 않은 의의를 가졌다. 특히 전후 복구 시기에 형제적 나라들로부터의 막대한 경제적 원조가 우리의 공업 복구 건설을 위하여 가진 의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였다.

우리 당은 형제적 나라들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였는바 이 원조액 중에서 4분의 3을 공업, 농업 및 운수 등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 기자재의 수입에 돌렸으며 그의 4분의 1을 인민 소비품의 수입에 돌렸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높은 기술적 토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높은 기술은 우리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기술적 락후성을 청산하며 새로운 기술에 의한 기술적 개건을 위하여 백방의 대책을 취하여 왔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공업화의 기술적 개건 행정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는가?

첫째로 그것은 전후 3개년 계획 기간 즉 공업 생산의 복구 시기에 이미 기술적 개건이 적지 않게 병행하여 진행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건은 선진적 기술에 기초한 대규모 공업 기업소들의 광범한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구시설의 복구 개건이 광범하게 수반됨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졌다. 1957년 1월 1일 현재 생산적 고정 폰드 총액 중에서 전후 복구 시기에 취득한 고정 폰드의 비중은 공업 전체에서 49.4%, 그 중 중공업 부문에서 45.6%, 경공업 부문에서 67.8%에 달하였으며 기계 제작 공업에서는 실로 81%에 달하였다. 전후 시기에 공업 고정 폰드의 갱신 상태를 표시하는 이와 같은 수자는 복구 시기에 수행된 새 기술 도입의 상태를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된다.

둘째로 우리 당은 공업 생산 행정의 기계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최신 기계 설비에 의한 대규모의 기계화를 실시하며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실시함과 함께 부분적 기계화, 소기계화를 광범히 조직함으로써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조건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결과인 기술 수단의 구조상 기형성과 아직 광범히 남아 있는 손로동 작업 행정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 부문에서도 그의 기술 장비는 최근 시기에 현저히 개선 강화되고 있으나 특히 여기에 있어서 현대적 기술과 재래식 기술과의 합리적 배합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째로 전후 시기 우리 나라 공업에서의 기술적 개건은 우리 나라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이 아직 미약한 조건에서 즉 아직 기술 수단의 재생산 토대가 국내에 충분치 못한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특히 현저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업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술 수단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국내적 토대를 현저히 강화하였으며 공업에서의 기술적 개건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기술적 개건의 과업을 해결함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기본적 문제의 하나는 기술 인재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 공업 발전 행정에서 기술적 개건의 과업과 기술 인재 문제 해결의 과업과의 호상 관계에서는 일정한 특이성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공업 발전 행정에서는 그의 첫 시기로부터 기술 인재 문제가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민족 기술 간부와 숙련 로동자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우리 당은 8.15 해방 이후 지어는 전쟁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러하였으며 특히 전후 시기에 들어 서서 국내 및 국외에서 각종 기술자 및 숙련 로동자들의 양성을 위하여 백방의 적극적 대책을 취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1953년에 비하여 1958년도에 인민 경제 전체 부문에서 종사하는 기사는 5배로, 기수는 4.3배로 증대되였으며 우리는 머지 않은 장래에 민족 기술 간부의 근본적 해결을 전망할 수 있게 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공업 생산력 배치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지난 전쟁 기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시기에 들어 서서 현저한 변화를 일으킨 우리 나라 공업의 생산 배치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계속 큰 변동을 일으켰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평안남도, 함경 남북도와 같은 구공업적 중심들에서 그의 구조상 변동이 크게 일어남과 동시에 자강도, 평안북도 등지에 새로운 공업적 중심들이 창설 강화되였으며 또한 최근 년간에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이 전국 각지에 광범히 배치되였다. 그리하여 공업 기업소들은 원료 원천지와 제품 소비지에 접근되고 있으며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업 내 제 부문 간에서와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는 지리적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생산 관계를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시키며 상부 구조를 경제 토대에 적응시키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공업 관리 체계를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 왔다. 특히 1959년 8월에 실시된 공업 관리 체계의 개편은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중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공업 생산력의 급속한 앙양을 촉진시켰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재편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호상 긴밀히 련결된 기본적 과업들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이 두 개 기본적 과업이 중심적 문제로서 해결되는 순차성에서는 적지 않은 특이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던 첫 시기에 이미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의 전면적인 앙양이 있었으며 이 력사적 변혁은 이 기간에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농촌 경리 자체의 특성과 함께 나라의 공업화 정도와의 깊은 련계 밑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농촌 경리 기술적 개조의 구체적 방도와 순차성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를 추진시키고 있다. 지난 기간에 우리 당은 주로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 자체의 특성과 함께 공업 발전의 수준을 신중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으로 되는 수리화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우리의 공업은 그를 위하여 각종 관개용 기자재들과 건설 자재, 전력 등을 대량적으로 보장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촉진되고 공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더욱 높아진 조건에서 앞으로 3~4년 내에 농촌 경리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해야 할 력사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는바 우리의 중공업은 이미 여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놀 수 있는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은 비상히 빠른 템포로써 진행되고 있다. 비상히 빠른 발전 템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의 특징적 특성의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경제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하루 바삐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당이 아직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현 조건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시급히 달성하여야 할 우리 혁명 정세의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 공업화의 빠른 템포는 사회주의 공업의 일반적 우월성을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근로 인민의 로력적 열의,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과 관련되여 있으며 그리고 또 사회주의 진영 내 형제적 나라들로부터의 경제적 및 기술적인 협조와 관련되여 있다.

우리의 공업은 이미 지난 복구 시기에 개건을 동반하면서 비약적인 템포로써 발전하였다. 그런데 최근 년간에 우리 나라 공업 생산의 발전 템포에서는 보다 새로운 특징이 표현되였다. 그것은 개건기에 들어 서서도 오히려 복구 시기를 릉가하는 비상히 높은 발전 템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복구를 기본으로 하였던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285%로 장성하였던 우리의 공업 생산은 개건기에 들어서서 3년 간에(1957~1959년) 3.1배로 장성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 템포는 공업 분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후의 페허 속에서 불과 수년 간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나라의 공업화를 완성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이와 같이 높은 발전 템포는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한 경제 발전의 거대한 우월성과 근로 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에 의하여 설명된다.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하루 바삐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 물질 생산적 기초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강력히 추동시키고 있다.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당에 의하여 육성 단련되였으며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떠 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혁명적 적극성——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비상히 높은 발전 템포를 실현케 하는 주관적 요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선진 기술로 장비된 튼튼한 중공업 기지가 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위한 객관적 요인으로 된다. 그러나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궐기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적극성이 없이 이 객관적 요인은 현실화될 수 없다.

당의 정확한 령도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적극성에 의하여서만 우리는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새 국면을 창조하는 온갖 새로운 조치들——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과 지방 공업의 전면적인 발전 등과 같은 창조적 대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일제로부터 락후한 공업 생산력을 물려 받았으며 사회주의 공업 발전 행정에서 두 차례의 복구 시기를 경과하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화의 이와 같은 높은 발전 템포는 우

리들이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해결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이하여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주고 있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행정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최근 년간에 우리 나라 공업에서는 로력 혁신자들의 대렬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혁신 운동이 광범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하고 공업의 기술적 개건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이 강화되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경쟁 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발현이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 공업에서는 선진 기술이 광범히 도입되고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이 합리화되고 로동자들의 문화 기술적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특히는 로동자들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의식과 창조적 로력 열의가 더욱더 강화됨에 따라서 로동 생산 능률은 급속하게 장성하였다. 전후 5개년 간(1954~1958년)에 공업 부문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은 약 2.6배로 장성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건에서 근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급속하게 제고되였다. 1959년도의 로동자, 사무원의 화페 임금은 1953년에 비하여 약 3.4배로 장성하였으며 그의 실질 임금은 이미 제 1차 5개년 계획에서 예견하였던 1961년도 수준을 릉가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이미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으로부터 벗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의식주에 대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건설자다운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다. 근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급속한 개선은 인구의 자연 증가률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인구 1,000명당 그의 자연 증가 수가 일제 말기인 1944년에는 10.5에 불과하였던 것이 1949년도에는 22.5에, 1958년도에는 실로 33.6에 달하였다.

＊ ＊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는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에 기인하며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기인한다.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거둔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1961년부터 제 2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였다.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며 기술 혁명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확립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과 제 2차 5개년 계획은 단순히 계속되는 두 개의 전망 계획으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서로 다른 두 단계로서 구분된다.

오늘 우리 당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사업을 갖추기 위하여 1960년도를 완충기로 규정하였다.

완충기의 중심 과업과 관련하여 이 기간에 해결해야 할 기본적 문제들은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인 공업 부문 앞에 새로운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공업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하여 력량을 집중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전투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자

리 석 록

완충기의 중심 과업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본적 문제의 하나는 량곡과 부식물 및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농촌 경리 부문에서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채소 생산을 확장하고 유지 및 공예 작물의 재배와 축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기된 이 당면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지 면적이 극히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토지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알곡 생산을 비롯한 모든 농촌 경리 부문의 발전이 토지의 효과적 리용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업에서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는 다른 생산 수단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요소로서 로동 대상과 로동 도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작물은 일정한 량의 광, 열, 수분 및 영양 물질 등 그에 필요한 조건이 보장되여야 생장 발육한다. 작물의 생장 발육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 물질과 수분은 토지의 표층인 토양 중에 있는바 작물은 자기의 근계를 거쳐서 토양의 이 유기 및 광물질 요소와 수분을 섭취하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토지는 공업에서 원료 자재와 같이 로동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사람들은 작물 재배시에 토양의 각이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속성을 리용하면서 자기의 실천적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로동 도구로 작용케 한다.

기본 생산 수단으로서의 토지는 다른 어떠한 생산 수단과도 교체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 없이는 농업에서 생산 과정이 진행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토지는 인간 로동의 산물이 아니며 인간 로동에 선행한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 생산 수단들처럼 생산할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다.

생산 수단으로서의 토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되는 것은 그것을 잘만 리용한다면 다른 생산 수단들처럼 마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단히 지력이 갱신된다는 사실이다.

《생산력 발전을 소여의 것이라고 전제하면 기계는 다만 악화될 수 있을 따름이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하는 경우에는 낡은 기계들은 전부 보다 유리한 기계에 의하여 대체되고 따라서 포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토지는 이것을 옳게 취급만 하면 부단히 개량된다》(자본론, 제 3권 2분책, 조선문 판, 434페지).

토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비옥도는 인간의 영향하에 부단히 제고된다.

토지의 이러한 특성을 정당하게 리해하는 것은 우리 당 농업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기본 생산 수단으로서의 토지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농업 생산의 실천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자극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해방 이후 일관하여 토지의 옳은 관리와 그의 효과적 리용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특히 1954년 당 중앙 위원회 11월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당과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여 전쟁 피해지와 휴경지를 복구 개간하였으며 관개, 하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농경지를 옳게 보호 관리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토지 정책과 그를 받들고 일떠선 농민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농경지의 기본 면적과 농작물의 총 파종 면적은 해마다 증가되였는바 이는 최근 년간 우리 나라 농업 생산에서 급격한 앙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로 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명하여 준다.

구분 / 년도	경지 리용률 (%)	알곡 총 생산량 (만 톤)
1957년	134.5	320
1958년	144.5	370

이것은 알곡 생산 발전의 결정적 고리가 토지의 효과적 리용에 의존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난 시기 많은 선진적인 지대들에서는 토지의 합리적 리용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창조적 로력 투쟁을 전개한 결과 공화국 평균보다 더 토지 리용률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알곡 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고 있다.

례를 들면 1959년에 함경남도 북청군에서는 군'적으로 토지 리용률을 180%로 높이고 알곡 총 수확량이 1949년에 비하여 6,000 여톤이나 증수되였으며 과실 총 수확량은 1951년에 587톤이였던 것이 1959년에는 무려 1만 180 여톤으로 제고 되였다.

그러나 1959년에 일부 시, 군들에서는 일부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이 토지 관리 및 리용률 제고에서 당의 방침과 의도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일련의 부족점들이 발로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지난 시기 토지 관리 및 리용에서 발로된 결함을 시정하고 완충기에 해결할 중심적 문제의 하나인 알곡 생산을 백방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페경지, 휴경지, 류실, 매몰지 등을 복구하고 새 땅을 개간하여 10만 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확장할 것이며 밭 면적의 리용률을 170% 이상으로 높일 것》(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서)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토지의 합리적 리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관리의 개선, 농경지 (논, 밭, 과수, 상전 등) 리용률의 제고, 농지(농경지, 방목지, 경제림 등)의 효과적 리용, 새 토지의 획득, 집약화 수준 제고 등의 제반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토지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상과 같은 조직 경제적 대책과 함께 농촌 경리 부문 일부 일'군들의 **토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 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현존 토지 실태를 정확히 조사 료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개 시, 군들에서는 토지 대장을 정확히 정리하며 현 실태에 부합되는 기본 경지 면적을 정확히 장악한 기초 우에서 토지 관리 질서를 확립하며 경지를 람용하는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농경지 리용률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해당 지대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다모작 경종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평야 지대의 모든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밭과 논에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여야 하는바 중요한 예비는 맥류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장하며 그 후작으로 사료용 옥수수와 콩을 심는 것과 논에 전작으로 사료 작물(호밀)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것이다.

토지 리용률 제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적지 적작의 원칙**을 준수하며 **작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 문제이다. 각이한 지대에서 토성과 토질은 동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양에 포함되여 있는 영양 물질의 종류와 산성화 정도도 다르다.

우리 나라에 많이 분포되여 있는 뺀드졸 토양에는 그 표층에 한 정보당 3,000키로그람의 질소 성분, 5,000키로그람의 린 성분, 5만키로그람의 카리 성분과 기타 다른 성분이 포함되고 산성화 정도도 높으나 하천 류역에 분포되여 있는 충적토는 이보다 비옥하며 산성화 정도도 낮다. 매개 작물들은 또 그 자체가 영양 물질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경지의 매 정보당 최대의 생산물을 내는 원칙에서 전문화와 작물 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에서는 토질과 기후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매개 작물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타산하지 않는 데로부터 이 원칙이 위반되는 현상도 있다. **적지 적작의 원칙에 의한 생산의 합리적 배치와 전문화는 알곡 생산을 비롯한 기타 부문들을 발전시키며 단위 면적당 최대한의 생산물을 내며 생산물 단위당에는 최소 한도의 로동과 물질적 소비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농업 생산 조직의 기본 원칙이며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그러므로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어느 포전에 무엇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기의 경험과 과학적 조사 사업을 거쳐 장악하고 이에 적응하게 다수확 작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농산물 생산 계획도 이에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많은 농업 협동 조합들은 그가 놓여 있는 자연 경제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2모작 체계를 도입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개풍군 연릉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가을 보리를 심은 밭 15 정보에 후작으로 엇무우(여름철 무우)를 6월 20일 경에 심었고 그 후작으로는 8월 말에 가을배추를 심었다.

이와 같이 3모작을 실시해서 토지 리용률을 300 %로 높인 결과에 소출을 그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냈다.

적지 적작의 원칙에 의한 2모작 체계의 도입으로 토지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알곡 생산 발전의 중요 조건이 되는 리유는 그것이 우선 주작물 외에 부차적인 작물(콩, 사료 작물 등)을 재배하면서 주작물의 파종 면적을 침범하지 않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케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농지(농경지, 방목지, 경제림 등)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땅이 척박하다》하여 그를 페경시키지 말고 비옥한 땅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비옥한 땅에만 치중하는 그릇된 경향을 하루 속히 시정하고 전체 농지를 보다더 집약적으로 리용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존 경지의 보호 관리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하는바 관개 하천 제방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 한 평의 땅이라도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산과 하천이 많고 경사가 심한 동해안 지구에서는 농경지의 보호 관리 사업에 더욱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서해안 지구에서는 방조제 구축, 갑문 보수 등에 류의하면서 이 사업을 기존 관개 시설의 보수 정비 및 용수 확보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농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 비옥한 땅에 알곡을 배치하지 않고 사료 작물을 배치하는 등 현상을 근절하는 동시에 야산에 과수를 재배하거나 아주 척박한 땅에 뽕나무나 고사리, 버섯을 심는 등으로 한정된 농지를 쉬우지 말고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 일성 동지는 토지의 합리적 리용을 위하여 경지가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 가능한 한 새 토지를 획득할 필요성에 대하여 한 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새 토지 획득의 가능성과 원천으로 되는 것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 간석지, 폭탄 구덩이, 두둑과 각담 등인바 이를 개척하면 상당한 농지가 획득될 수 있다. 그 중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광활한 간석지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약 30만 정보의 간석지가 있는바 이 중 약 10만 정보는 농경지로 개간할 수 있다. 간석지를 논으로 개간하는 사업과 함께 이를 로초전으로도 광범히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지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의 합리적 리용의 기본 방도로는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새로운 토지의 확장을 위한 예비는 제한되여 있기 때문이다.

농업에서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관리 및 그의 리용률을 제고함과 함께 심경, 밀식, 다량 시비 등 집약적 영농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집약적 영농법의 광범한 도입은 토지의 경제적 비옥도를 조성하는 기본 방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모작 체계의 도입과 함께 구체적 토성과 작물에 알맞는 과학적 시비 체계의 확립이다. 이를 위하여 매 조합들에서는 매 포전별 산성화 정도, 토양에 포함되여 있는 질소, 린산, 카리의 량 등에 립각하여 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적응하게 과학적으로 시비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산성화된 토양이 많은 조건에서 석회 비료를 시비하여 토양을 중화시키고 광물질 비료의 과도한 시비를 금하고 질 좋은 유기질 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비 체계 확립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히 2모작 체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논 전작에는 주로 맥류, 완두, 봄배추, 시금치 등 작물이 파종되게 되는데 이들은 산성에 매우 약하므로 이같은 토양에 전작 파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당한 수량의 소석회 또는 생석회, 카바이드재 등을 미리 뿌려서 산성을 중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이 없이는 토지가 제한되고 산성화된 토양이 많은 우리 나라 조건에서 2모작 체계의 효과를 보다더 제고할 수 없고 따라서 알곡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잘 관리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이는 알곡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 농촌 경리 발전을 도모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한 평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땅이며 일제 때 우리 자신이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땅을 되는 대로 다루며 랑비하는 현상과는 전 당이 강하게 투쟁해여야 하겠다》(김 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는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농경지의 관리, 복구, 확장, 보호 사업을 책임적으로 추진시키며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완충기 알곡 생산 발전을 위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야 할것이다.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 육성의 기본이다

한 수 동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와의 유기적인 계승성과 체계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새로 개편되는 인민 교육 체제는 교육과 생산 로동의 철저한 결합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이것은 우리 당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교육 리론의 창조적 구현이며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완전히 수응하는 또 하나의 현명한 혁명적 조치이다.

* *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은 본래 호상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 교육적 준비는 모든 실천 활동에 필수적이며 모든 전문적 준비의 기초로 되는 것인 만큼 그에 토대해서만 전문적 기술 교육은 실시될 수 있으며 또 일반 교육은 기술 교육에 의해서만 더욱 심화되며 체계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으로 될 수 있다. 이리하여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은 호상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호상 의존하고 호상 보충한다.

그러나 과거 착취 사회에서 기술 교육은 일반 교육과 분리되여 천시를 당하였다. 즉 처음에 일반 교육은 비근로 착취 계급의 교육으로, 기술 교육은 직업적 기술 교육으로서 생산적 피착취 근로 계급의 교육으로 발생하였다.

착취 계급은 사회 생활을 지배하며 관리 부문을 차지하고 그에 필요한 일반 교육을 자기 자제들에게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피착취 계급의 자제들을 한갖 값싼 로동력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만 직업적 기술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과거 우리 나라 봉건 시대에 량반 통치 계급은 생산 로동과 기술 및 기술 교육을 천시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봉건 시대의 《과거(科擧)》에서도 《문과(文科)》를 중요시하고 직업적 기술 계통의 관리 등용 시험인 《잡과(雜科)》는 천시하였다.

기술 교육을 일반 교육과 분리하여 그것을 천시하는 경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화되였다.

과거 일제는 중등 일반 교육의 주요 목적을 착취 계급 자식들의 고등 교육 준비에 돌리면서 기술 교육을 결합시키지 않았다. 다른 편으로 실업 학교니, 실업 보습 학교니 하는 것을 세우고 직업적 기술 교육을 전적으로 일제를 위해서 복무할 값싼 로동력을 준비하는 데 복종시켰다.

착취 사회에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이와 같은 분리는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의 대립,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의 대립과 그로부터 오는 로동의 일면성과 제한성 등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합리적 결합은 그의 분리를 조건 지은 낡은 사회의 사회—경제

적 기초가 완전히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높은 과학 기술적 기초우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 생산의 본질 자체는 그것을 요구하며 또 그것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 교육 체계는 사회의 상부 구조로서 사회 혁명의 물질적 발전, 해당 시기의 성숙된 혁명적 과업에 상응하여 발전한다. 따라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은 사회주의 혁명 승리 후 곧 일조일석에 실현될 수 없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인민 교육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중등 일반 교육 학교와 기술 전문 학교를 병존시킨 사실도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물론 우리 일반 교육의 성격을 착취 사회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우리 일반 교육은 그의 목적과 과업에 있어서, 그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종전의 우리 기술 교육 체계도 과거의 직업 학교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르죠아 직업 학교는 부르죠아지에게 값싼 로동력을 제공하며 《좋은 경우》에 있어서 극소수의 귀족 로동자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복리를 위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역군을 육성하는 우리 직업 기술 교육 체계와는 본질상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다.

실로 일반 교육 학교와 직업 기술 교육 학교를 병존시킨 종전의 우리 인민 교육 체계는 지난 시기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미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전면적 수행,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 육성의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는 벌써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유기적 결합은 완전히 성숙된 사회의 현실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요구하는 객관적 필연성은 무엇인가.

일찌기 엥겔스가 《공산주의 원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의 어떤 한 부문에 예속되여 국한된 협소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로써는 사회주의적 생산을 관리 운영할 수 없다. 발전한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들에 토대한 현대 생산은 현대 기술 공학적 일반 원리들을 파악하고 전 생산 체계에서 신속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급속하고도 부단하게 진행되는 기술적 진보, 기계와 설비의 부단한 혁신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일반 기술 문화 수준의 급속한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 농촌 경리 기계화의 성과적인 추진을 비롯한 모든 생산 부문에서 생산의 기술적 기초의 급속한 혁신과 관련하여 나날이 증대되여 가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단지 현존 기술 수준에 좇아 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더욱 새로운 기술을 부단히 창조하기 위해서도 생산의 과학적 기본 원리를 심오하게 파악하고 광범한 문화 기술적 시야를 소유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문화 기술 수준의 전면적 제고는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합리적 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요구하며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산주의 교육 교양의 원리는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을 요구한다.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결합시킴으로써만 인간 능력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결합만이 인간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인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로동은 체력과 지력이 동시에 참가하는 인간에게 고유한 목적 의식적 과정이다. 로동은 그것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손과 두뇌의 활동에 귀착된다. 손과 두뇌가 동일한 유

1959년 《근로자》 총 내용

—문 헌—

—권두언 및 편집국 론설—

—당 건 설—

—일반 리론 및 선전—

—경 제 건 설—

—콘 쑬 따 찌 야—

—조선 로동당 력사 및 혁명 전통 연구를 위한 자료—

—남조선 정세—

—국 제 정 세—

—형 제 당 사 업 경 험—

—서 적 해 제 및 평 론—

—기 타—

기체에 속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로동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그의 육체적 활동을 향도하며 또 그의 육체적 활동 과정 자체와 그 결과는 그의 정신적 활동의 토대로 되며 그의 체력과 지력을 발전시킨다.

이와 같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은 사회 활동에서 자연적으로 결합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착취 사회에서는 분렬 대립되여 있다. 따라서 착취 사회에서는 교육과 생산 로동이 결합될 수 없으며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도 실현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비로소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은 청산되며 그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모든 가능성이 조성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후대들의 전면적 발전은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에 의해서 달성된다. 그리고 주로 리론적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 교육과 실천 활동, 생산 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 교육의 결합은 학생들의 지'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보장한다. 이것은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은 일반 교육도 사회 현실과 결부됨으로써 그의 질이 결정적으로 제고되며 기술 교육도 인간 능력의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는 현대 교육의 수준에 설 수 있게 한다. 일반 교육은 기술 교육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추상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으며 생활과 유리된 공리 공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 교육은 일반 교육과 결합됨으로써만 후대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모든 다양한 조건들을 다 구비하게 된다. 왜냐 하면 일반 교육은 후대들의 지'적 발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미'적 발전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지에 있어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은 내부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호상 침투되여 있다.

현대 기술 교육은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사회 과학에 대한 심중한 연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바 이러한 모든 과목들은 바로 일반 교육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한 오늘 현대적 생산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지식은 일반 교육의 필수적 요소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기술 과학적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회적 생산 과정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며 생산 활동에서 그의 정신적 잠재력을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기술 과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활동을 보여 주며 인간 생활의 직접적 생산 과정을 보여 주며 사회 생산의 과학적 및 기술적 기초를 알려 준다.

따라서 기술 과학적 지식은 그가 어느 한 생산 부문의 전문가로 되기 전에 벌써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누구나가 다 알아야 하는 일반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맑스는 《자본론》에서 대공업의 기초 우에서 발생한 기술 학교와 기술 교육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교육을 로동자를 일생 동안 한 가지 직업에 얽매여 두면 과거 낡은 사회의 분업의 결함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은 사람들에게 전면적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 교육이 협소한 직업적 준비에 국한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생산 활동의 기초에 침투하는 일반적 향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되여야 한다. 때문에 맑스가 지적한 대규모 공업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기술 교육은 일정한 직업적 준비에 머무를 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추어야 할 일반 문화 또는 일반 교육적 성격을 띠는 것이며 일반 문화 교육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사람들의 공산주의 의식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말씀에서 훌륭하게 천명되였다.

사회주의 사회 생산력의 주요 구성 요소를

이루는 인간은 비단 생산 기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진 자각적이고 적극적인 공산주의 투사라야 한다.

그런데 후대들 속에서 공산주의 의식을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 교육은 지극히 큰 역할을 논다. 왜냐 하면 일반 교육의 내용에서는 사회 발전 법칙, 혁명과 계급 투쟁에 관한 지식을 주는 사회 과학 과목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목들의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자본주의 사회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제도 승리의 필연성에 관한 확신을 줌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사회 생산력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인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 공산주의 의식의 제고는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합리적 결합에 의해서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과학 기술적 기초의 급속한 발전은 근로자들의 광범하고 심오한 기술 문화 수준과 공산주의 의식의 제고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급속한 향상, 로동 시간의 단축, 교육 조건의 개선 등은 이러한 제고를 위한 온갖 가능성을 조성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 육성의 통일적 과정의 두 개 측면이며 그의 결합은 교육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 ❊

현실과 유리된 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급 중학교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민 교육 체계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에서는 중등 일반 교육을 완성하며 높은 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철저한 결합을 보장하게 된다.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기술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참가하여 자기 맡은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종합 대학이나 기술 대학이나를 막론하고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일반 교육 지식과 기술 교육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 교육은 배운 리론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확고하게 하며 실천에서 제기되는 리론적 문제들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할 가능성을 준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조주의적, 주관주의적 사고 방식과 학습 태도를 퇴치하고 실천에서 사물 현상들을 관찰하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시킨다. 또한 그들에게 사회적 실천에 대한 조직 능력과 강한 실천적 의지를 배양해 주며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집단주의적 품성과 규률 등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배양해 준다.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은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는 우선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 간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자, 농민과 생산—기술 인테리 간의 문화 기술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는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며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을 통하여 후대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육체 로동에도 종사할 수 있고 정신 로동에도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양한다.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 교육은 후대들

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조화적 발전을 보장하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을 촉진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 생산력을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거대한 전변을 이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생산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며 후대들의 능력의 전면적 발전을 가장 잘 보장함으로써 현 시기 우리 나라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우리 후대들을 훌륭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하는 기본 방도로 될 것이다.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의 설치는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교육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또 그를 발전 풍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 조치는 하루 이틀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한 오랜 력사적 준비와 발전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며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교육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의 합법칙적 발전이며 그의 결실이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를 실생활과 련결시키며 교육을 생산 로동과 결합시키는 선진적 조치는 이미 1930년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 당시의 혁명적 교육 활동에 그의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1930년대 초에 동만 일대에 창설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내에 수립된 인민 혁명 정부가 조직 전개한 교육 활동은 학과 학습을 실지 혁명 투쟁, 생산 실천과 결합시키는 원칙을 구현하였다.

특히 《아동 혁명단》의 교육 활동에서 교육을 생활 특히 혁명적인 정치 활동과 결부시키며 생산 로동과 결부시키는 원칙이 훌륭하게 실현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아동 혁명단》의 장정(章程)에 지적되여 있는 교양 규정들과 요강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서는 생산과 학습을 결합시킬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로 학습을 사회주의—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위업에 복종시키며 배우면서 일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아름다운 전통은 이미 항일 무장 투쟁 당시의 이러한 교육 교양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당은 이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해방 후 첫날부터 후대들의 교육에서 리론과 실천을 통일시키며 학생들을 건설과 로력에서 난관과의 투쟁에서 교양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실시하여 왔다.

특히 우리 당 제 3차 대회는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결합시키며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시킬 데 대한 더욱 구체적 방침을 천명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새로운 인재들은 모두가 당의 사상과 의지로 무장하고 실천적 능력을 소유한 일'군으로서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역군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교육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젊은 세대를 혁명 과업 수행에 쓸모 있게 교양한 우리 당 교육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이러한 승리적 성과가 없이는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 ❊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인민 교육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 사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교원들의 정치—사상적 및 실무적 준비 정도 여하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교원들의 자질 향상에 있어서 제 1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들의 정치 사상 수준을 높이며 당적 사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 문

제이다. 동시에 교원들 속에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낡은 부르조아 사상 잔재와 낡은 교육 관념을 극복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 향상에서 그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결합시킨 인민 교육 체계는 교원들의 실무 능력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교들에서 교원들은 자기의 전공 과학 지식에 정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린접 과학과 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및 자연 과학 과목 전반에 걸쳐 광범한 일반 문화적 시야를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일반 교육 과목들과 기술 교육 과목들 간의 긴밀한 호상 련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후대 교양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지식과 생산 기술 기능을 습득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원들 앞에 제기되는 절실한 과업이다.

후대들의 교육 교양 사업에서 교원들의 교육적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교원들이 자체를 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는 데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들은 교육과 생산 로동,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새로 조직되는 인민 교육 체계가 우리의 후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힘 있는 무기로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력사적 사변

전 인 철

우리 전체 인민이 그처럼 고대하던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이 작년 12월부터 드디여 시작되였다.

첫 귀국선이 동해를 건너 청진항에 도착하였을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전 민족은 기쁨에 들끓고 있으며 조국의 산천도 환희에 춤추고 있다.

재일 동포들——그들은 어떻게 갔던 길을 지금 어떻게 돌아 오고 있는가?

새 희망을 가지고 조국의 따뜻한 품안에 다시 안기는 귀국 동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 전체 인민들이 지나 간 반 세기의 력사를 회고하며 오늘의 이 현실을 대비할 때 참으로 감개 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문제——바로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지난 력사에서 겪은 비운의 잔재이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청산하게 되였다는 것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기할 력사적 사변이며 우리의 거대한 승리이다.

더우기 오늘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이 가지는 의의와 그 영향력은 벌써 한 민족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하나의 큰 사변으로 되였다.

이 세상에 두 체계가 존재하며 특히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량단된 조건하에서 자본주의 권내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에로 수 십만의 재일 동포들이 행복을 찾아 집단적으로 귀국하는 사실——이것이 과연 큰 사변이 아니겠는가.

서방 부르조아 출판물들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경악을 마지 못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돌아 온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지난 날 조국이 망국의 비운에 처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현해탄을 건너게 되였었다.

일본에서 그들은 더는 살아 나갈 수 없는 생활고의 도탄에 빠졌다. 일본 출판물들은 그들의 생활이 《지상 최저》의 것이라고까지 묘사하였다.

그들이 구원될 길은 오직 조국에 돌아 오는 것 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귀국을 자원하여 나섰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그리고 국제법의 규범에서 절대로 침범될 수 없는 그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또한 우리 인민들은 그들을 맞이하여 안착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민족적 의무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이 정식으로 일정에 오른 때로부터 실현을 보기까지에는 1년 여 동안 우여곡절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것은 순전히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 귀국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전변시키며 그것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 책동에 봉착하였기 때문이였다.

이 인도주의의 원쑤들로부터의 악랄한 방해 파괴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노력에 의하여 그리고 귀국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줄기찬 투쟁, 이에 대한 일본의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협력, 전 세계 공정한 여론의 성원에 의하여 마침내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대한 숙망은 실현되였다.

그런즉 이것은 우리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의 승리로서, 진리와 세계 여론의 승리로서 더 한층 빛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 *

귀국한 동포들은 저마다 희망에 따라 일터와 배움의 길을 보장 받고 알뜰한 문화 주택들에서 희망에 찬 새 살림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조국 인민들의 끓어 넘치는 열렬한 환대에서 생전 처음 조국을 가진 진정한 기쁨과 동포애,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에 잠기였다.

《꿈같다》, 《참 오기 잘했다》, 《일본에서 내가 살던 오막살이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다》——자기들의 기쁨과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바를 모르는 귀국 동포들로부터 이러한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평양 시내의 어느 아빠트에 든 한 귀국자의 안해는 처음 그 집에 들 때 가장집물과 식기와 성냥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놓여 있는 큰 독의 뚜껑을 열자 하얀 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그 독 우에 쓰러져 그칠 줄 모르게 울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였거니와 수 십년 간 이국 땅에서 빈궁 속에 시달려 온 그들에게 귀국 후 어떻게 생활을 안착시키는가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였다.

이 어려운 문제가 오직 인민에게 주권이 장악된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있고 그를 령도하는 강력하고 현명한 당과 수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훌륭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사에 있어서 그러한 바와 같이 그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다. 그를 위한 물질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지난 날 지도상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오늘 사회주의 진영 대가정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였고 지난 날 천대 받고 멸시 받던 모든 것을 영원히 청산한 문명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됨으로써만 재일 동포들은 오늘처럼 희망과 행복에 넘쳐 그리운 조국에 돌아 올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해방 후 우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빈터 우에 우리의 주권,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제도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침해로부터 3년 간이나 피어린 가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전후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페허 속에서 일어나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푼을 아끼며 악전 고투하여 마침내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는 우리 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국은 삶'길을 찾은 재일 동포들에게 구원의 배를 보냈으며 그들이 돌아 와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여 놓았다.

바로 오늘 우리 전체 인민들이 재일 동포들의 귀국을 맞이하여 그처럼 거족적 기쁨에 들끓고 있는 것은 다만 헤여졌던 혈육들을 다시 만나게 되였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여 놓은 일,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오늘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인가를 동포들의 귀국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똑똑히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조국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천대 받던 때는 영원히 지나 갔으며 무궁히 번영 발전하는 새 시대, 로동당 시대에 살게 되였다는 기쁨과 자부심에 이기지 못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미제의 충견 리 승만 도배가 재일 동포들이 공화국으로 돌아 온다고 하여 미친듯 통곡하며 그것을 방해하려 한 것은 바로 조선 인민이 잘 되여 가는 것을 한사코 증오하며 자기들이 남조선에서 저질러 놓은 천추의 죄악이 더욱 온 세상에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였다.

외국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는데 리 승만 도당은 그들의 귀국을 방해하기 위한 갖은 추악한 책동을 다하던 끝에 심지어는 니이가다의 귀국자 집결소를 폭파시키려는 악랄한 음모까지도 꾸미였었다.

이것은 리 승만 도당이 문'자 그대로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낱낱이 보여 주었다.

리 승만 도당은 재일 동포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 온다고 하여 통곡을 하나 오늘 고향을 남조선에 둔 재일 동포들도 남조선에는 설사 가려고 한다 해도 갈 수 없는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15년 간에 걸친 파쑈적 암흑 통치의 결과에 민족 경제는 여지 없이 파탄되고 농촌 경리마저 황폐화된 오늘의 남조선에서 남은 것은 인민들의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 뿐이라는 것을 재일 동포들은 잘 알고 있다.

무법과 악법이 횡행하고 헐벗고 굶주린 수 백만의 실업자, 수 십만의 걸식 아동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의지할 곳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그 암흑 천지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 들 곳도 없으며 일터와 배움의 길이 막힌 그곳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심지어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의 의지할 곳 없는 실업자, 절량 농민들을 《이민》이란 명목하에 외국의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종신 노예로서 팔아 넘기려고까지 흉책하고 있다.

허다한 서방 출판물들까지도 오늘의 남조선의 참상을 두고 《구원될 수 없는 생지옥》, 《지상에 부풀어 오른 악의 종처》 등으로 부르고 있거니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없어 바로 수많은 재일 동포들이 더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고

있는 그 일본으로 도망쳐 가는 현상까지 속출하게 되였겠는가.

일본의 부르조아 신문 《아사히 싱붕》까지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을 방해하는 리 승만 도당의 장난을 비웃으며 《남조선은 재일 조선인들의 북조선 송환을 방해하려고 애쓸 대신에 왜 재일 조선인들이 공산 국가로 가기로 결심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조선에서의 생활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곤난하기 때문에 귀환자들이 북조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모든 사태는 아주 똑똑하게 되였다.

리 승만 도당이야 통곡을 하건 말건 재일 조선 공민들은 마땅히 올 길을 왔다. 재일 동포들이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하여 표시한 신뢰와 희망은 곧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학정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심정을 말하여 준 것이며 전 조선 인민의 심정을 말하여 준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수치스러운 파산을 당하였다.

오늘 우리 전체 인민이 재일 동포들의 귀국을 맞이하여 그처럼 거족적 환희에 들끓고 있는 것은 또한 이국 땅에서 비통한 굴욕의 생활을 겪어 오던 동포들도 드디어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지척의 사이에 있는 남반부 동포들이 이렇게 암흑의 생지옥에서 구원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자신심이 새로이 북바쳐 오르는 기쁨의 충동에서 온 것이다.

* *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이 시작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어용 출판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소위 《자유 세계》로부터의 《공산 세계》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 하여 마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어떤 《선전》의 결과에 생겨난듯이 사태의 진상을 외곡하며 훼방하려고 날뛰였다.

심지어 그들은 소위 《자유 세계》를 포기하고 《공산 세계》를 선택한 것이 《다시는 되돌아 올 수 없는 불행의 길》에로 빠져 들어 가는 것인듯이 떠들어댐으로써 귀국자들의 앞길에 암운을 던져 보려고까지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시도였다.

그들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대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흩어졌던 한 민족이 제나라에 다시 모여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선전》이 될 수 없으며 또 《선전》의 힘에 의하여 되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한 일본 기자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정형을 세밀히 본 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며 사람은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 가는 법》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재일 조선 공민들이 대거 조국에로 귀국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선전》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닥쳤던 랭혹한 현실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소위 《자유 세계》에서 그들이 《향유》한 《자유》란 《실업의 자유》, 《굶어 죽는 자유》 뿐이였다.

그들은 이런 《자유》에서 벗어날 것을 원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소위 《자유 세계》로 불리우는 그 제도를 벗어나기 전에는 삶의 권리도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도 가질 수 없었다.

한 귀국자가 《내 고향은 충청남도이지만 가야 굶어 죽을 걸 어떻게 고향으로 가겠습니까?》고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한 《자유 세계》의 범주에 드는 남조선에서는 더 무서운 《굶어 죽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오직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여 있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귀국함으로써만 그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지 지금 그들은 그렇게 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조국이 귀국한 동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따뜻한 동포애의 손'길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으며 또 결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라면 그 누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선들 돈 없이 훌륭한 집을 주고, 생활 도구를 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 주고, 희망 대로 일터를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 찬란히 개화 발전하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기치하에서만 오늘 이것은 가능하였다.

소위 《자유 세계》로부터의 《공산 세계》에로의 《전례 없는 민족의 대이동》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이것은 우리 당의 거대한 정치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우리 나라 사회, 경제 정치적 위력의 일대 시위이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정치 도덕적 패배를 실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동시에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당당한 승리로 된다.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신 영 빈

최근 남포 일용품 공장 초급 당 단체 위원장 고 규환 동무 외 여러 독자들로부터 《사회주의 경제는 왜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대답하여 줄 것을 제기하여 왔다. 편집국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아래의 글을 게재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모든 분야의 매개 고리들에서 계획화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 경제의 계획화 즉 인민 경제의 계획적인 운영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합법칙적 요구이다.

왜 사회주의 경제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되여야 하는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되여야 할 필연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나 그 이전의 모든 경제 체제와 전혀 다른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된다.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들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만큼 그들 간에는 반드시 일정한 상호 관계 즉 일정한 균형이 존재한다. 가령 일정한 량의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일정한 량의 방추, 직기 등 생산 도구와 일정한 량의 면화 및 전력, 석탄 등이 요구되며 또 일정한 량의 방추, 직기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해당한 생산 도구(즉 공작 기계)와 일정한 량의 금속, 목재, 석탄, 전력 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에 일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나 별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균형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생산 방식에 따라 각이하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인민 경제 부문 간의 균형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단한 동요와 불균형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공황을 통하여서만 유지된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자본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가들이 더욱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제멋대로 생산하고 제멋 대로 생산물을 팔기 때문에 경제의 계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자본가는 생산을 진행하면서도 그 생산물이 과연 시장에서 제값 대로 모두 팔릴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생산이 맹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혼란과 불균형이 지배하며 물자, 로력 자원이 헤아릴 수 없이 랑비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사정이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게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여 있다. 즉 여기에서는 생산 수단이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거나 또는 협동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로 되고 있다. 이것은 인민 경제가 유일한 목적에 종속된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생산 수단이 개인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여 있는 자본주의하에서는 개개의 자본가들이 제멋 대로 기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고 전체 인민 경제가 하나의 살림살이를 이룬 사회주의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였다.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은 오직 유일한 계획 밑에 모든 경제 단위의 활동을 결합시키며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목적 의식성 있게 조직 운영함으로써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자원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고 로동 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는 인민 정권이 경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여 있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법칙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법칙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방 후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확대 발전에 기초하여 계획 경제를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전쟁 전에는 두 차례의 년간 계획과 2개년 계획을 통하여 단시일 내에 파괴된 인민 경제를 성과적으로 복구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과 인민 경제 발전 제 1차 5개년 계획을 작성 실행함으로써 불과 6년 남짓한 기간에 전쟁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괴되였던 인민 경제를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켰다.

그러면 현 시기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첫째로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유일적인 지배를 확립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개인 농민들이 있고 개인 상공업자들이 있을 때에는 국가가 그들의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계획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형편이 달라졌다. 오늘은 사회주의 경제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 부문과 생산, 분배, 교환, 소비, 축적 등 경제 활동의 모든 측면을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둘째로 그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속도가 비상히 빠르고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인민 경제 부문들 간의 련계가 더욱더 복잡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우리 나라 공업 생산은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6.1배, 1956년에 비하여는 3.1배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농업, 운수, 기본 건설, 상품 류통 등 모든 부문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기에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경공업 부문 등에서 일련의 부문들이 새로 창설되였다.

지방에도 최근 시기에 1,000 여개의 지방 공업 공장들이 새로 창설되고 지방 건설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상품 류통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지방 인민 위원회들이 직접 조직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는 인민 경제 부문 상호 관계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균형은 오직 인민 경제의 계획적인 운영으

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오늘 모든 지도 일'군들이 사회주의 경제 지식으로 더욱 더 무장하고 매개 단위의 경제 운영에서 계획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매개 고리들에서 인민 경제의 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여 정확한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으로는 작성된 계획에 철저히 립각하여 경제를 예견성 있게 조직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민 경제의 계획화에는 과학적인 계획의 작성과 그의 실현을 위한 창조적 투쟁 과정이 포괄된다.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을 정확히 반영한 예견성 있는 계획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대체 인민 경제의 계획적 운영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인민 경제의 매개 고리들에서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하여 현 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기본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현존 생산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 설비, 물자, 로력, 재정 자원을 옳게 타산하여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욕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의 주체적인 활동은 경제 발전에서 거대한 작용을 한다. 이것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의 현실이 특히 똑똑히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주체적 활동은 객관적 가능성의 조성을 촉진시키고 그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시기 일부 경제 기관과 기업소들에서는 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타산하지 않고 주관적 욕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종이에 줄'간이나 긋고 생각나는 대로 수'자를 써 넣는 식으로 계획 작성 사업을 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러한 《계획》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집행 과정에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계획이 없는 것과 다름없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도달된 생산력 수준을 정확히 타산하여 현실적이고도 견실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매개 기업소들에서 현재 설비와 생산 도구는 얼마나 있는데 그것으로 과거에는 얼마나 생산했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겠는가, 원료와 자재는 얼마나 보장될 수 있으며 제품 단위당 소비 기준은 얼마인데 그것을 얼마나 낮출 수 있겠는가, 또는 로력자 수는 얼마인데 그들의 기능 수준과 의식 수준은 어떠하며 로동 생산능률은 과거 어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높일 수 있겠는가 등을 과학적으로 세밀히 타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방 인민 위원회들에서와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농업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농기계와 농기구는 얼마나 있는가, 토지는 현재 몇 정보인데 그를 어떻게 개량하고 리용률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급 비료와 화학 비료는 얼마나 확보할 수 있으며 그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은 무엇인가, 선진 영농 방법은 어떤 것을 어느 시기에 도입하며 로력은 과거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절약할 수 있겠는가 등등을 검토한 기초 우에서 단위당 수확고는 얼마로 높이며 알곡 생산고는 몇 톤으로 높이겠다는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 타산에 근거한 계획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 현실에 근거하여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결코 덮어놓고 안전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고 소극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역시 주관주의의 표현

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이고도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부단히 발전하기 때문이다. 생산 도구도, 사람들의 기술 기능 및 의식도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다.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안일한 계획을 작성한다면 그것은 불파코 대중의 적극성을 마비시킬 것이며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저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와 대중이 창조한 모든 새롭고 선진적인 것을 세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대책들을 예견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획 작성 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인입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제기되는 기본 문제는 경제의 균형적이고 조화 있는 발전을 보장하도록 경제 활동을 전면적으로 계획에 포섭하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측면들을 옳게 련결시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각이한 부문들과 경제 활동의 각이한 측면들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전체 인민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이 호상 관계 즉 균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산, 분배, 류통, 소비 간의 균형,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 공업과 농업 간, 중공업과 경공업 간,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 인민 경제와 운수 간, 축적과 소비 간, 물자 자원의 분배와 재정 자원의 분배 간, 주민의 구매력과 상품 보장 간, 기술 기능 간부에 대한 수요와 그의 양성 간, 각이한 지역 간의 균형 등이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자기 관할하의 지방 공업과 농업 간, 생산과 상품 류통 간 등의 상호 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지방의 자연 경제적 특성에 맞게 생산 계획을 옳게 작성하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생산물들이 제때에 시장에 나오도록 생산과 상품 류통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부식물을 떨구지 말고 공급할 수 있게 생산을 구체적으로 잘 조직하는 것은 오늘 지방 인민 위원회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기업소와 협동 조합들의 경제 활동에서도 모든 측면이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가령 공업 기업소에서 일정한 생산을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해당한 설비와 원료 자재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여야 하며 일정한 로력과 자금이 보장되여야 한다. 또한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얻은 자금으로 기업소 자체의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성을 높여 생산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필요한 농기계, 농기구, 종자, 비료 및 농약 등의 보장을 위한 공급 사업과, 생산물을 조합원들의 개인 소비, 조합 공동 경리의 발전을 위한 축적, 국가 납부 등에 적절히 분배하는 사업 또한 여유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를 비롯한 판매 사업 등이 호상 계획적으로 잘 결합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 농업 협동 조합 경제 활동의 각이한 측면들 즉 생산, 분배, 교환, 소비는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문들과 측면들을 옳게 련결시키지 않는다면 인민 경제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경제 활동의 모든 측면들을 밀접히 련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각종 발란스를 작성하여 수요와 원천을 대비하며 그를 합치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다.

례를 들어 시, 군 인민 위원회에서 자기 관할하의 농업과 경공업을 련결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산물 발란스를 정확히 작성하여 농업 원료에 대한 경공업의 수요와 그의 원천을 대비 검토하며 또한 경공업과 상품 류통을 련결시키기 위하여서는 상품 발란스를 작성하여 경공업 제품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그의 원천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재 생산과 건설

을 련결시키기 위하여서도 전재 발란스를 작성하여 전재에 대한 수요와 그의 원천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소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각종 물자, 로력, 재정 발란스들을 작성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각이한 측면들을 잘 맞물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 경제의 매개 고리의 계획 작성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첫째가는 원칙은 해당 시기 당이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철저히 립각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모든 균형들과 매개 경제 기관, 기업소,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제반 경제 활동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 작용하고 있는 경제 법칙들의 요구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성숙된 과업을 해결하는 데 적응함으로써만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인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작용을 정확히 인식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의 해결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 경제 계획 작성에서 해당 시기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은 부문 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며 매개 지방의 경제 발전의 옳바른 방향과 기업소, 농업 협동 조합 경제 활동의 정당한 방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인민 경제 계획의 작성 사업은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아무리 정확한 계획을 작성하여 놓아도 만일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종이'장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 일단 작성되고 국가에 의하여 비준된 계획은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더욱 훌륭하게 꾸려 나가기 위한 설계도의 일부분이며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로 된다. 따라서 어느 한 고리에서 계획 대로 생산물이 나오지 못하거나 계획 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할 때에는 그 단위의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와 유기적으로 련결되어 있는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계획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작성된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로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매개 기업소들에서는 우선 부과된 계획을 매개 직장, 매개 작업반, 매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고 그를 철저히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기업소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그 계획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기술적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에 엄격히 근거하여 조직 집행하는 것이 기업소들과 협동 조합 일'군들 앞에 나선 급선무로 된다.

기업소의 경제 활동에 비추어 말한다면 우선 설비를 계획적으로 관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에 근거하여 설비의 대보수를 제때에 진행하며 그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보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설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의 파동성을 퇴치하며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물자도 계획적으로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즉 계획에 근거하여 다른 기업소들과 계약을 옳게 체결하고 제때에 자재들을 인수하며, 물자를 쓰다가 보자는 식으로가 아니라 엄격히 소비 기준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소비하며, 소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대책과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 개선 및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직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소의 생산물을 제때에 반출 실현하여 기업소의 자금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획 외의 자금 지출 특히 비생산적 지출을 허용하지 말며 국가 예산에 대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기 위한 백방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균형적으로 실행하며 또한 지표별로 꼭꼭 수행하여야 한다.

월초, 분기 초에는 완만하게 일하다가도 월말, 분기 말에는 돌격식으로 사업한다면 결국 기업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여러 부문의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지 않고 하기 쉽고 가격이 높은 제품만 생산하여 계획의 금액상 완수에만 급급하는 것이나 생산 계획은 하면서도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계획과 원가 저하 계획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인민 경제 전반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기경, 파종, 제초 등 모든 전야 작업을 계획에 근거하여 제때에 진행하며 그를 위한 농기계와 농기구의 확보 및 보수 정비 사업과 자급 비료의 생산, 종자의 준비도 계획에 예견한 대로 꼭꼭 실행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산물의 처리도 계획적으로 하며 축적과 소비를 옳게 조절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조합의 경제 토대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소와 협동 조합들에서 계획 실행을 조직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은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는 문제이다.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볼 때 금년 경제 사업의 중심 고리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한, 완충기에 해결하여야 할 기본 문제 즉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백방으로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절약하여 증산하며, 외화를 더 많이 획득하고 힘써 아껴 쓰는 것이다.

매개 기업소와 협동 조합들에서는 완충기의 이 중심 과업에 기초하여 자기 부문, 직장 사업에서의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기업소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제때에 자기 사업을 총화하는 것이다.

기업소와 협동 조합들에서는 매일, 매순, 매월마다 자기 사업을 총화함으로써 계획 수행에서 달성한 성과는 무엇이고 부족점은 무엇이며 그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를 어떻게 퇴치하여야 할 것인가를 대중과 함께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 경제 계획의 현실성은 대중들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는 것은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 정권 기관을 포함하는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각급 지도 일'군들은 기업소와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제 활동이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계획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기업소와 협동 조합들에서의 계획 수행 정형을 세심히 관찰하고 사업상 결함들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한 적시적인 지도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경제 지도 기관 책임 일'군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대중과 함께 문제를 토의하며 기업소와 협동 조합의 계획 실행 과정을 직접 지도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도 일'군들이 기업소에 직접 나가서 지표를 따지고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을 해결하여 주며 그들이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세심하고 일상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작성된 동원적인 계획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필수적 담보로 된다.

서적 해제 및 평론

불패의 우의, 공고한 단결

1958년 말에 김 일성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의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월남 민주 공화국의 친선 방문은 국동에서의 거대한 정치적 사변의 하나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의 중국 및 월남 방문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승리자들의 상봉이였다.

이 방문은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서 있는 조 중, 조 월 인민들 간의 불패의 통일 단결과 전통적인 친선 및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는 최근,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의 이 중 월 량국 방문 관계 문헌집 《영원한 친선》을 발간하였다.

이 문헌집에는 우리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 대회들과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중국 및 월남 정부 지도자들의 연설, 조 중, 조 월 정부들의 공동 성명, 형제 나라 신문들에 게재된 사설, 보도 기사, 사진, 시 등 귀중한 문헌과 자료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문헌집을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친선, 공고한 단결의 붉은 뉴대다. 우리는 이 문헌집의 페지마다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의 빠포스를 본다.

우리는 우선 이 문헌집에서 중국 및 월남 형제들의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에 대한 열광적인 환영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다.

북경과 상해에서, 하노이와 남딘에서,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중들의 환성은 천지를 진동하였고 그 속에 친선의 정은 끓어 넘쳤다.

중국의 한 로동자 리 학오는 《가장 친애하는 김 일성 원수를 맞이하여》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환영! 환영! 환영하나이다!
하늘을 찌르는 환호로
땅을 뒤흔드는 박수로
6억만 뜨거운 심장으로》(48페지).

6억 인민의 열화와 같은 환영——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조 중 량국 인민들의 친선은 뿌리 깊고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5 여 성상에 걸쳐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 투쟁 행정에서 맺어진 조 중 인민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국제주의적 전통으로, 자랑으로 되고 있다.

주 덕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 로동당과 정부의 여러 지도자들은 모두 중국 혁명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또한 중국 혁명의 지도 사업에 참가하였었다.

여러 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 일성 수상은 일찌기 중국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항일 투쟁에 장기간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북 항일 련군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였다》(27페지).

조 중 량국 인민 간의 불패의 우의는 해방 후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였다.

조선 전쟁에의 중국 인민 지원군의 참전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새로운 형태의 모범 이였다.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은 중국 및 월남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과 거기에서 달성된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북경시 군중 대회와 하노이 비행장에서의 환영 군중들 앞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완성되였으며 정치 사상 전선에서도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오늘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실로 하루가 20년에 해당하는 비약적인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34페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한 월남 인민은 오늘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건설 투쟁에서도 온갖 영웅성과 창조적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135~136페지).

방문 기간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은 중국과 월남 형제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하고 있는 거대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보고 배웠으며 또 조선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형제적 벗들에게 소개하였다.

방문은 조 중 월 세 나라의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의 교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다더 촉진시킴에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 문헌집에 수록된 중 월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의 연설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당이 훌륭한 령도 핵심을 가지고 있으며 맑스주의 원칙에 무한히 충직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며 무한한 긍지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조 중 두 나라 수령들이 상봉한 무한에서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훌륭히 단련된 간부로써 튼튼히 단결되여 있는 강철같은 당이다. 조선 로동당은 어떤 수정주의적 사조에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일관하게 확고히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정부의 정책은 정확하며 정당하다.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지도하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앙양이 이룩되고 있으며 인구 1인당 제품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58~59페지 참조).

오늘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리를 솜씨 있게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케 하고 있다. 이 성과의 기저에는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우리 당의 령도 핵심의 탁월한 령도가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문헌집에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및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지도자들과 호 지명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월남 로동당 및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 지도자들과의 력사적인 회담과 관련된 글과, 공동 성명들을 읽게 된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 중, 조 월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 현 국제 정세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조 중 량국 정부의 공동 성명과 조 월 량국 정부의 공동 성명에는 조선과 월남의 평화적 통일, 중국 국토의 완정을 달성하기 위한 결의가 표명되였으며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에서 미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주장이 반영되여 있다. 동시에 외래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세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련대성이 다시금 천명되였다.

회담과 공동 성명들은 조 중 월 인민들의 불패의 친선 단결의 시위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가일층 강화에 거대한 기여로 되였다.

오늘 국제 정세는 사회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식민지 체계는 총 붕괴기

에 들어 섰다. 1960년대는 이 과정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장 개석, 느고 딘 디엠 도당들이 제아무리 몸부림치며 발악한다 하더라도 조선 인민과 월남 인민은 반드시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것이며 대만은 중국 인민에게 돌아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문헌집은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락관주의로 교양하는 훌륭한 교과서로, 안내자로 될 것이다.

김 경 학

인류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일어난 수많은 정치적 사변을 알고 있다. 그러나 쏘련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의 미국 방문처럼 전 세계 인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들을 흥분시킨 사변은 보기 드물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미국 방문이야말로 현 시기 조성된 국제 관계 발전에서 제기된 긴절한 문제인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랭전》의 종식, 공고한 평화와 친선에로의 길을 개척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는 금번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미국 방문 기간의 중요 연설, 담화, 사진들을 수록한 《평화는 승리한다》라는 문헌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1959년 8월 5일에 진행된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의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언명으로부터 시작하여 9월 28일 모쓰크바 귀환과 관련하여 조직된 모쓰크바 근로자들의 군중 대회에서 한 연설에 이르기까지 도합 65편의 연설, 담화, 보도 기사들이 수록되여 있다.

유엔 제 14차 총회에서 한 연설과 군비 철폐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을 비롯하여 이 문헌집에 수록된 모든 문헌들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사상, 내'적 론리는 《랭전》의 얼음을 깨뜨리고 평화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는 자기의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친선의 정을 가지고 미국 인민에게로 왔으며 우리 량국 간의 호상 관계를 개선하며 전 세계 평화를 공고화하려는 진지한 념원을 품고 왔다. 이것은 우리의 방문의 주요 목적이다.

우리는 극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귀국 정부와 합의를 보고저 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은 많다. 그러나 나는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및 <랭전>의 종식, 군비 철폐, 대독 강화 조약, 국제 통상, 우리 량국 간의 호상 관계의 개선에 관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들고저 한다》(35폐지).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의 사상에 근거하여 현 시기 평화적 공존,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위한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워싱톤에 도착하여 한 첫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인민들이 평화의 유지와 공고화에, 평화적 공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좋은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는 모든 인민들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모든 나라 국가 활동가들이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침으로 삼아야 할 출발점으로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24폐지).

물론 각이한 두 제도 간에는 불상용적 모순

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나라들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된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을 방지하며 성숙된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들을 호상 협조와 양보에 기초하여 회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두 제도 간의 평화적 공존은 평화적인 경제적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전 세계 인민들의 리해에 완전히 부합된다. 평화의 사절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누가 수소 폭탄과 로케트를 더 많이 가지는가 하는 점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 인민을 위하여 주택, 학교, 진료소를 더 많이 건설하며 누가 빵, 우유, 육류, 의복 및 기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가 하는 점에서 경쟁하자.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112폐지).

이 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유엔 제 14차 총회에서 한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연설과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이다.

군비 철폐에 대한 쏘련 정부의 제안은 현 시기 국제 생활에서 조성된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며 필연적인 결론이다.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의 변화, 이에 토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 달성된 과학 기술의 발전 특히 쏘련의 로케트 분야에서의 거대한 과학적 성과는 인류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 즉 전쟁이 없는 단계에로의 이행의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다. 군비 경쟁을 그만 둘 때가 다가 온 것이다. 이러한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쏘련 정부 선언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크다.

이 제안의 위력은 위대한 쏘련에서 발기하고 사회주의 진영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유엔 제 14차 총회는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에 대한 쏘련 정부의 제안을 만장 일치로 찬성하였다. 이것은 결코 군비 철폐가 벌써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이 제안의 옹호자들 외에 또한 반대자들도 있다는 데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국제 정세 발전의 전반적 추세로 보아 이 제안은 전체 인류에게 항구한 평화의 길을 가리켜 주며 또 이 목적은 달성되고야 말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가이며 실천가인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레닌형의 활동가로서의 풍모를 이모저모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체류 중 종종 적대적 기분을 가진 일부 분자들의 도발적인 질문에 접하였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설득력 있는 자기의 대답으로써 공산주의자로서의 자기의 립장을 확신성 있게 천명하였다. 이것은 엔. 에쓰. 흐루쑈브를 위하여 뉴욕 시장 와그너가 배설한 조찬회에서 한 그의 연설이 잘 말해 주고 있다(68~74폐지 참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엔. 에쓰. 흐루쑈브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 솔직성, 생기 발랄성, 예리성, 락천성 등에 경탄하였다.

그의 연설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며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 및 사회 활동가임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는 2주일 간의 짧은 미국 방문을 통하여 자기의 청중들인 미국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제 원칙을 해설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쏘련 인민의 생활과 쏘련 인민 경제의 성과에 대하여 알게 하였다.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미국 방문이 거둔 성과의 하나는 쏘련의 국제적 위신을 전례없이 제고시켰으며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로 하여금 평화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바로 이 신뢰는 그들을 승리에 대한 확신성과 미래에 대한 락관성으로 충만케 하여 투쟁에로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전 세계 근로자들과 함께 조선의 근로자들도 이 책의 페지마다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정열적으로 옹호한 내용이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구체적 사실로써 해석한 내용이며 항구한 평화를 위한 열렬한 호소를 감명 깊게 읽게 될 것이다.

엄 창 종

변증법적 유물론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자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과학원 출판사 발행)에 대하여—

과학원 력사 연구소 철학 연구실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발간한지 2년이 경과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저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세계관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근본 특성의 하나인 리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의 관점에서 그것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저서는 그간 많은 독자들에게 맑스주의 철학 학습을 위한 중요한 참고서의 하나로서 적지 않게 리용되였고 그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저서는 이러한 우점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적지 않은 부족점들과 결함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이 책이 내포하고 있는 부족점들과 반드시 보충하여야 할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철학 교재 서술에서 당성 원칙의 관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보아 필자들은 철학의 당성 원칙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은 철학의 당성 원칙의 중요 측면인 현대 부르죠아 철학의 반동성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일련의 부족점을 발로시켰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저자들은 18~19세기의 관념론 뿐만 아니라 현대 부르죠아 철학 특히 공화국 남반부에서 류포되고 있는 신토마스주의와 론리적 실증주의 및 실용주의의 반동적 철학 리론들을 심각히 폭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약하게 취급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서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에서 현 시기 관념론의 사회 계급적 및 인식론적 근원을 심오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현대 자연 과학의 성과와 그 발전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명제들과 리론들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 과학에서 추상화와 수학적 론리학 등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리용하여, 부르죠아 반동 철학자들은 여기서 관념론의 인식론적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즉 현 시기 일부 자연 과학자들은 과학적 추상화의 의의를 실천과 분리시켜 극단적으로 확장하고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주관주의적 관념론에로 전락되고 있다. 때문에 저자들은 《서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에서 관념론자들이 현 시기 과학 발전의 성과를 어떻게 외곡하며 인식 과정의 어떤 《특징》과 《측면》들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명백히 폭로했어야 할 것이였으나 이 문제를 극히 일반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서론》, 《변증법의 기본 법칙》 및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 등의 장에서 현대 수정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비판을 전개하지 못하였고 현대 수정주의 철학 사상이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의 정치적 상부 구조와 어떻게 밀접히 관련되고 있으며 특별히는 독점 부르죠아지들의 반동적인 정치적 강령, 정치적 이데올로기야와 어떻게 호상 련관되고 있는가를 리론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당성 원칙 관철에서의 일정한 부족점으로 된다.

특히 철학에서 당성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최 창익, 박 창옥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견해와 그의 인식론적 및 사회—계급적 근원들을 철학적으로 폭로 비판하며 그의 사상 여독을 청산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투쟁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켜야 했는바 례컨대 《서론》,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범주》,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 등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서에서는 이러한 우리 당의 사상 투쟁의 주요 내용과 요구들을 관철시킴이 부족하였다.

저자들은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실례에서 당성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였고 이 법칙을 비속화하였다. 저자들은 마치도 우리 나라 인민이 식민지 노예로서 자기 주권을 상실한 것과 우리 농민들이 일제에게 토지를 략탈 당한 것을 《첫째》 부정의 실례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리론적으로 타당치 않으며 정치적으로는 과오로 된다. 맑스주의 철학에 있어서 변증법적 부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제 대립에로의 분렬, 그것들의 투쟁 및 해결》(엥겔스, 《반듀링론》, 조선문 판, 463페지)이며 《순수한 부정, 무익한 부정, 비판적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는 련계의 계기로서와 발전의 계기로서의 부정》(레닌, 《철학 노트》, 로문 판, 197페지)인 것이다. 따라서 부정에 대한 변증법적 리해의 본질은 사물과 현상의 발전 도상에서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내'적인, 필연적인 부정이며 사물과 현상의 자기 발전의 계기로서의 부정인 것이지 결코 어떤 외'적 힘에 의한 부정,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점, 토지 수탈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내'적, 필연적 계기로서의 부정, 발전의 계기로서의 부정으로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 자립적 발전을 청산하려는 제국주의적 략탈인 것이다. 때문에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퇴보가 아니라 사물의 발전의 견지에서, 상승적 변화의 견지에서 그 실례가 인용되지 않고서는 독자들을 옳게 리해시킬 수 없다. 실례는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 여기서도 당성 원칙이 중요하다.

만약 저자들이 쓴 바와 같이 일제에 의하여 조선 인민이 자기 주권을 상실한 것과 토지를 수탈 당한 것을 첫째 번 부정의 실례로 든다면 이것은 결국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점과 토지 략탈이 부정의 한 계기로서의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인 행정으로써 독자들을 리해시키게 된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성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문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저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대상》, 《물질과 의식》,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 서술에 있어서 엄밀한 과학성과 전일적이고 정연한 리론적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물질과 그의 존재 형식》, 《물질과 의식》 등에서 저자들은 현대 자연 과학의 성과들에 기초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들》에서도 현대의 정치적 제 사변들과 긴밀하게 련관시키려고 하였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들에서도 리론적 문제들을 해명하며 구체화하려고 적지 않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대상》 서술에 있어서 저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대상과 철학 일반의 대상 간의 호상 관계 문제를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대상 규정에 있어서 저자들은 유물론의 리론과 발전에 관한 변증법이 그의 내용으로 된다는 것을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였으며 객관 세계 발전의 일반적 법칙과 인식 발전 법칙의 호상 관계를 해명하지 못하였다.

저자들은 철학의 기본 문제를 서술하면서 물질과 의식의 호상 관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하였으나 《…물질과 의식

과의 대립도 극히 국한된 령역의 한계 내에서만,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오로지 무엇을 1차적인 것으로 인정하며 무엇을 2차적인 것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인식론 상의 기본 문제의 한계 내에서만 절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 밖에서는 이 대립의 상대성은 의심할 바 없다》(전집, 제 14권, 조선문판, 187페지)라고 한 레닌의 이 중요한 사상에 대해서도 리론적으로 해명하여야 했다.

저자들은 또한 《서론》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출현과 그의 세계사적 사명이 맑스주의 철학 발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리론적 분석을 주지 못하였다. 인류의 사상 발전에서의 혁명적 전환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발생은 무엇보다도 당시에 조성된 새로운 력사적 조건 즉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발생과 그의 진출, 그의 세계사적 사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여 있다.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출현이 없이, 로자 간의 모순과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이 없이는 맑스주의의 발생 그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객관적 조건이다. 그러나 맑스주의 철학 창시에 있어서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주관적 요인 즉 맑스와 엥겔스에 의한 위대한 발견, 그들의 로동 운동에의 참가와 그의 직접적 지도인바 이것이 반드시 리론적으로 해명되였어야 할 것이였다. 이것이 해명됨으로써만 우리들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계급적 지반과 맑스주의 철학 발견에 미친 로동 계급의 역할, 맑스주의 철학 발생에서 로동 계급의 수령의 역할 등을 리해할 수 있으며 인류의 사상 발전에서의 혁명적 전환의 본질을 더욱 명백히 리해할 수 있다.

저자들은 《서론》과 《세계의 물질성, 물질과 그의 존재 형식》에서 현대 물리학에서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하였다고 정당하게 지적하였으나 그의 인식론적 및 사회—계급적 근원에 대한 리론적 해명은 주지 못하였다.

이에 있어서 레닌이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자연 과학에서의 주관적 관념론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비판하였는가 하는 것은 물리학이 새로운 성과와 발전을 가져 온 오늘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또한 《물질 세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련관과 발전》에서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강조하지 못하였다. 례컨대 《변증법적 유물론》의 저자들은 법칙과 합법칙성의 변증법적 호상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했다. 또한 저자들은 여기서 일반적 법칙과 개별적 법칙 그리고 특수 법칙들을 지적은 하였으나 그들 간의 호상 관계를 리론적으로 분석함이 부족하였다. 일반적 법칙은 객관적 사물과 현상들 속에 존재하는 수다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사상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반영하고 있으니만큼 순수한 형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개 사물의 구체적 현상들, 개별적인 것, 특수적인 것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이다. 특수적인 것은 마치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련계하는 고리와도 같다. 그는 개별적인 것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인 것과의 관계에서는 개별적인 것으로 된다. 이 분야 서술에서 저자들은 일반적 법칙들을 우리 당이 어떻게 우리 나라의 구체적 특수 조건에 적용하였고 또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것이 특수적인 것, 개별적인 것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작용하며 그가 우리의 실천에서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리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바로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특수적인 것과의 호상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리해에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가 발생되는 중요한 근원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저자들은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들》의 서술에서 엄격한 과학성, 론리성을 준수함이 미약하였으며 때로는 극히 불명확한 서술을 찾아 볼 수 있다. 례컨대 저자들은 확고한 리론적 근거를 보여줌이 없이 《주요 모순은 변증법적 견지에서 볼 때 기본 모순보다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184~185페지)라고 하였는바 이것은 저자들이 《기본적 모순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 가운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며 기타의 모순은 이 기본 모순에 근본적으로 종속된다》(184페지)라고 규정한 것과 대비할 때 그 과학적 정식화들에서 론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저자들은 한 곳에서 《주요 모순은 미제 침략 세력과 그의 세력을 부식하며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 자본가, 친미파, 민족 반역자 등을 원쑤로 하고 남북 조선의 로동 계급과 그의 가장 믿음직한 농민과 소부르죠아지 및 애국적 민족 부르죠아지를 우리 편으로 하는 두 개 세력 간의 심각한 모순》(185페지)이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모순을 기본 모순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199페지 참조)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의 호상 관계를 명백히 서술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 혁명의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이 무엇인가 하는 규정은 론쟁 문제라 하더라도 우선 론리적 불철저성으로 하여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에 대하여 독자들이 리론적으로 명백히 리해할 수 없게 하였다.

저자들은 모순의 해결 방도에서 《독재의 방법과 민주주의적 방법》(201~202페지)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극히 불명확하게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독재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그 량자를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적 관리 체계가 결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민주주의와 대립시키는 카우츠키 도당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기도가 순전한 데마고기에 불과하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야말로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라고 하였다.

저자들은 또한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의 서술에서도 비약에 대하여 아무런 리론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정식화를 주고 있다. 즉 그들은 《점차성의 **중단이 없이** 진행되는 점차적 비약》(157페지, 방점은 인용자)을 설정하고 나아가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제 비약은 점차성의 중단이 없이 진행》(158페지)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고전이 교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비약은 곧 량적 변화의 점차성의 중단, 련속성의 중단을 의미하는바 이는 량적 발전, 진화적 발전의 중단과 질적 발전, 비약적 발전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련속성과 련속성의 통일을 의미한다. 엥겔스는 《모든 점차성에도 불구하고 한 운동 형태로부터 다른 운동 형태로의 이행은 의연히 언제나 하나의 비약이며 결정적인 전변이다》(《반듀링론》, 조선문 판, 85페지)라고 하였다. 비약은 모순의 주요 측면의 교체, 모순의 해결이며 진화적 발전의 혁명적, 비약적 발전에로의 이행이며 새 것에 의한 낡은 것의 부정, 새 것의 확립인 것이다.

비약을 해명함에 있어서 저자들은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완수하는 데까지 이르는 전 혁명 행정을 포괄한다》(159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리론적으로 전혀 그릇된 규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월 혁명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초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 시작되였다.

저자들이 변증법의 법칙들을 서술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전의 진화적 형태와 혁명적 형태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해명하지 않은 것은 이 책의 결함의 하나다.

우리가 발전의 성격, 원천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리해하려면 발전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심오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또는 두 가지의 가능한? 또는 두 가지의 력사상에서 볼 수 있는?) 발전(진화)관은 감소 또는 증대로서의, 반복으로서의 발전과 대립물의 통일(통일체의 호상 배제하는 대립물로의 분렬과 그러한 대립물 간의 상호 관계)로서의 발전이다. 첫째 운동관에 있어서는 자기 운동, 그의 **원동력**, 그 원천, 그 동인이 **은폐**된다. … 둘째 운동관에 있어서는 주되는 주의가 바로 **자기** 운동의 **원천**을 인식하는 데 경주된다. 첫째 운동관은 생기 없고 빈약하고 고갈된 것이다.

둘째 운동관은 생기 있는 것이다》(《철학 노트》, 로문 판, 327~328페지)라고 하였다.

저자들은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들을 서술하면서 변증법의 제 법칙들 간의 호상 관계를 해명하여야 했다.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들은 호상 분리되고 련관이 없는 법칙인 것이 아니라 객관 세계의 사물 변화 발전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호상 련관된 법칙들인 것이다. 모든 사물들과 현상들이 호상 련관되여 있는 것만큼 사물 현상들의 내부적, 본질적 관계를 표현하는 법칙들 특히 가장 일반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법칙들도 역시 전체로서 련관되여 있으며 매개 법칙들의 범주 호상 간에 일정한 련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존재론적 견지에서 즉 사물 자체 내에서 법칙들의 호상 관계와 인식론적 견지에서의 그것의 호상 관계들을 해명함으로써 변증법의 제 법칙들의 객관성과 그의 내부적 련관을 정확히 리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들은 객관 세계 자체에 존재하면서 호상 분리되여 고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물과 현상에서 동시에 통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례컨대 한 사물과 현상의 발전에서 량적 변화의 질적 비약에로의 이행은 동시에 사물과 현상에 존재하는 모순의 축적과 그의 해결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낡은 것의 새 것에 의한 부정과 새 것의 확립, 새 것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변증법의 기본 법칙의 호상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즉 《유물 변증법의 세 개 기본 법칙은 각각 그 작용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그 작용의 성격은 가장 보편적이다.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은 전기 법칙에 비교하여 비교적 그 작용이 넓은 범위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법칙의 보편적 성격을 의심하는 것도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보다도 그 작용이 요구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그 작용의 보편적 성격은 전기 법칙보다 약하다》(227페지, 방점은 인용자)라고 하였다. 이것은 리론적 오유이다. 엥겔스는, 저자들이 다른 기본 법칙보다 보편적 성격이 약하다고 한 《부정의 부정》의 법칙에 대하여 《그것은 (<부정의 부정>의 법칙——인용자 주) 극히 일반적인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히 널리 적용되는 중요한, 자연, 력사 및 사유의 발전 법칙》(《반듀링론》, 조선문 판, 184페지, 방점은 인용자)이라고 하였다.

저자들은 또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의 절에서 토대와 상부 구조의 발생에 대하여 불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저자들은 《낡은 토대 우에서의 새로운 상부 구조의 발생은 낡은 토대와 낡은 상부 구조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되였기 때문이다》(194페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낡은 사회의 토대에서 새로운 상부 구조의 발생은 낡은 토대와 상부 구조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벌써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 토대는 지배와 복종,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때문에 상부 구조도 토대의 적대적인 성격, 모순적 성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죠아적 정치, 법률적 사상, 철학 기타 등 견해와 그에 상응하는 부르죠아적 국가 기구와 정당들이 존재함과 함께 다른 편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적 사상과 그에 상응하는 정당, 사회 단체들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환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낡은 토대의 모순에 기초하여 새로운 상부 구조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유물 변증법의 범주의 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매 범주들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함과 아울러 범주들 간의 호상 관계와 범주와 법칙들 간의 관계를 맑스주의 철학의 전 체계에서 명백히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범주들을 다만 병렬적으로, 동격으로가 아니라 그것들 간의 호상 관계와 호상 이행, 객관 사물의 발전과 인식 발전의 관점에서 즉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에로의 발전의 관점에서 서술하며 해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자들이 그렇게 서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째서 바로 그런 순서로 범주들을 서술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독자들로 하여금 리해할 수 없게 한다.

또한 범주들을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론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명하여야 했으며 특히 범주의 객관적 성격을 강조했어야 할 것이였다. 저자들은 질과 본질, 형식과 현상 등과 같은 제 범주들의 차이와 호상 관계들을 존재론적 견지에서와 우리들의 인식 과정의 발전의 견지에서 해명함이 부족하였다. 례컨대 질은 전체로서의 사물의 존재와 전체적으로 직접 관련되여 있는바 그 사물에만 고유한 질적 규정성이 없는 동일한 사물의 존재란 있을 수 없다. 본질은 사물의 내부적, 필연적 측면으로서 그것은 객관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보다 심오한 인식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저자들은 질과 본질을 다만 동일시하였을 뿐 그 차이를 밝히지 않았다. 범주로서의 내용과 형식의 서술에서도 저자들은 내용의 내부적 구조를 표현하는 내부적 형식과 직접 내용과 관련되지 않으면서 내용의 제 요소들과 제 부문들의 결합이 실현되는 외'적 형식의 호상 관계를 명백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례컨대 문화에서의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에 대하여 말할 때 여기서는 예술에서의 형상, 언어, 슈제트 구상 등 주로 문화의 내부적 형식을 우리는 념두에 두고 있다.

특히 내용과 형식에 관한 서술에서 응당히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과 그것을 련관시켜 해명하여야 할 것이였다. 그것은 사물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 간에 조성되는 모순의 극복이 사물 발전의 원천으로 되기 때문이다.

가능성과 현실성의 해명에 있어서도 저자들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을 그것과 결부시켜 해명함이 부족하였다. 가능성의 본성 자체와 그리고 가능성의 현실성에로의 이행은 사물과 현상의 내'적 모순의 발전과 분리시켜

고찰할 수 없다.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두 경향 즉 반대되는 방향에서 작용하는, 모순되는 주요한 두 경향으로 관찰되여야 한다. 례컨대 전쟁 방지의 가능성과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전쟁 도발의 가능성과 같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현실적 제 경향들을 정확히 해명함으로써 우리들은 일체의 가능성들을 전면적으로 타산하고 사물과 현상 발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리한 가능성들을 동원하며 리용할 데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독자들에게 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리해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역시 우리들이 당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저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에서 력사적인 것과 론리적인 것,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등 문제들을 해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풍부히 하고 있으며 인식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리해시킴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철학의 대상에서나 인식론 또는 기타 다른 부문들에서도 변증법과 론리학과 인식론의 호상 관계와 그의 통일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반드시 인식론 서술에서 사유의 법칙과 객관적 존재의 법칙의 통일성을 해명하여야 했다. 엥겔스는 《사유 법칙과 자연 법칙은 옳게 인식되기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서로 일치한다》(《자연 변증법》, 조선문 판, 220페지)라고 하였다. 자연의 법칙이나 사유의 법칙은 모두 객관 세계의 반영이며 내용상에서 하나인만큼 발전에 관한 가장 일반적 학설로서의 변증법은 인식론과 론리학을 자체에 포괄한다.

또한 저자는 인식론 서술에서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호상 관계 문제를 일반적으로 서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들로써 확신성 있게 론증하지 못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 집필에서 중요한 것은 맑스주의 철학의 리론들과 법칙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결부시켜 해명함으로써 그것을 주체성 있게 서술하는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분야에서 저자들은 우

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명제들과 결부시키려는 좋은 기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법칙들과 그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리론적 심오성을 희박하게 하였다. 결과 현실 결부가 《결부를 위한 결부》로 되고 만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리해함에 있어서나 다른 편으로는 산 현실에 기초해서 철학적 범주를 생동하게 리해함에 있어서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서술들에는 우리 당 문헌에 철저히 의거함이 부족한 표현들도 있다. 례컨대 저자들은 사회주의하에서 관료주의 발생이 낡은 사상 잔재에 기인된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 형식주의의 가장 유해한 변종의 하나가 곧 관료주의이다. 관료주의는 반인민적 통치 방법으로써 과도한 중앙 집권화에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262페지)라고 그릇되게 평가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관리식 사업 방법이나 관료주의 작풍은 모두 일제 잔재 사상에서 출발되는 것》(선집, 제 4권, 71페지)이라고 교시하였다.

또한 이 책의 서술에서는 그 전반적 내용에서 조선 철학사와 결부하려는 노력이 극히 적었는바 이것은 철학사 서술에서 《서구라파 중심주의》를 반대하는 측면에서나 주체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중요한 결함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저자들이 때로는 극히 부정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다. 례컨대 《종교는 모두 인간의 무지 몽매로부터 발생》(35페지)하였다든가 철학적 범주로서는 극히 애매한 《최대의 모순》이란 개념의 사용 등이 그러한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일부 자연 과학적 문제에 대한 확증에 있어서 《태양 내부에는 38%의 수소, 59%의 헬륨 그리고 약 3%의 기타 원소들이 포함》(44페지)되여 있다고 하였는데 현대 자연 과학에 의하면 태양 내에는 60 여개의 화학적 원소가 존재하며 원자의 수량상에서는 수소가 제 1위를 차지하며 헬륨은 수소보다 4~5배가 적고 기타의 화학적 원소는 수소의 0.001밖에 안 된다.

끝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편집과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비록 이 책이 여러 저자들에 의하여 집필되였다 하더라도 최소 한도 서술 체계와 문장 형식은 기본상 통일시키는 것이 좋았겠다.

총체적으로 보아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간은 우리의 철학계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주체 있게 서술하기 위한 첫 시도였으며 일정한 긍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부족점들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철학 참고서의 발간에서는 이상의 결함들이 시정되여 더욱 높은 리론적 수준을 견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리 능훈

새 철학 책 번역 출판

최근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는 쏘련 과학원 철학 연구소가 발행한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1958년 판)을 번역 출판하였다.

우리 간부들에게 있어서 철학 학습 문제가 긴절한 요구의 하나로 되고 있는 오늘 이 책의 출판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 책이 대학생들과 철학 자습자들을 위하여 맑스주의 철학—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이 책은 크게는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여 있고 서론과 본론은 다시 총 19장으로 되여 있다.

서론은 3개의 장으로 되여 있으며 철학의 대상과 맑스주의 철학 발생까지의 간략한 철학사를 포괄하고 있다.

본론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의 두 편으로 되여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 편은 7개 장이며, 력사적 유물론 편은 9개 장이다.

결론에서는 이 책의 총 내용에 대한 실천적 의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맺음말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반대하면서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 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날에 나온 철학 책들이 가지고 있던 일련의 내용상, 체계상 결함들을 현저히 극복하고 있으며 서술상에 있어서 정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맑스주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는 유물론과 변증법의 유기적 결합에 관한 문제 해결에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운동에 관한 문제를 물질에 관한 규정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좋은 실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를 사물의 본질과 그들 간의 호상 련관의 견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 간에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내'적 모순은 사물의 본질 자체에 있는 모순이다. 때문에 사물은 두 대립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외'적 모순은 서로 그렇게 긴밀하게는 련관되여 있지 않는 각이한 사물들, 각이한 본질들 간의 모순이다》(285페지 참조).

이 책에서는 또한 레닌의 철학적 유산들이 지난 날에 나온 책들에 비해 훨씬 많이 취급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론 편의 제 3장 제 3절 《맑스주의 철학의 창조적 성격과 웨.이.레닌에 의한 그의 발전》에서는 맑스주의 철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레닌이 수행한 공적들이 부문별에 따라 흥미 있게 구분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제반 성과와 1957년 11월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력사적인 회의 선언 그리고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의 문헌 사상들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적 운동의 성과 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의 최신 성과들을 반영하고 일반화함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례컨대 인식론의 발전과 그리고 최신 과학 성과의 가장 빛나는 열매로 되는 쏘련에서의 첫 인공 지구 위성들의 발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책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과학에서의 새로운 대발견은 매번 맑스—레닌주의적 인식론의 정당성과 과학적 인식의 무한성에 관한 학설의 정당성을 새롭게 확증하고 있다.

20세기 선진 과학의 새로운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된 것은 쏘베트 학자들에 의한 첫 인공 지구 위성들의 발사였다. 인간의 우주 공간 정복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행성 간 려행의 길을 열어 놓은 이 사건의 의의는 인공 위성들의 제작에 참가한 일'군들의 그 특수한 지식 분야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이 사건은 또한 커다란 세계관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공 지구 위성들의 발사——이것은 반동에 대한, 종교적 및 관념론적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타격이다》(367페지).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지적해야 할 것은 또한 력사적 유물론의 전 내용을 통해 지난 날에 나온 책들에서 많이 범해지고 있던 철학과 과학적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의 서술 내용과의 혼잡을 상당한 정도로 극복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날에 나온 책들은 철학과 더불어 맑스주의의 다른 두 구성 부문인 과학적 사회주의와 정치 경제학에 대한 철학의 방법론적 의의를 지나치게 해설하다 나머지 그것들의 특수한 연구 령역에로까지 흘러 나가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결함에서 벗어남으로써 맑스주의 철학의 대상 특히 력사적 유물론의 대상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과학적 사회주의와 정치 경제학의 방법론으로서의 철학의 의의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맑스—레닌주의 당성을 고수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반대하면서 특히 오늘날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주되는 위험으로 되고 있는 수정주의와 그리고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예봉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유물론과 변증법의 립장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세계와 모든 사물 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시종일관 창조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각국 당들에서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로서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 부르죠아 철학을 반대하여 맑스—레닌주의 당성과 순결성을 고수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적대적인 관념론 철학을 폭로 비판함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과도 지적할 수 있다. 즉 이 령역에 있어서 지난 날에 나온 철학 책들은 주로 과거의 관념론 철학만을 비판하는 데 그침으로써 일면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현대 부르죠아 반동 철학과 전체 맑스주의의 현대 적들과의 투쟁에 상당한 지면을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제 19장 《현대 부르죠아 철학 및 사회학의 기본 류파들》에서는 현대 부르죠아 철학과 사회학에 대한 기본 특징들에 대하여 쓰고 계속하여 현대 주관적 및 객관적 관념론, 현대 부르죠아 력사 철학, 사회 생활의 《요인》론과 《분야》론, 실험 혹은 경험 사회학, 사회학에 있어서의 심리학적 류파,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층》론, 국제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부르죠아 사회학의 설명 등을 포괄하고 있다.

*　　*

맑스주의 철학은 창조적 성격으로서 특징적이다. 이것은 철학 학습 자체의 창조적 태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책을 참고로 학습함에 있어서도 철학의 기본 원리들을 옳게 습득하고 문제의 해명, 분석 방법들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유물 변증법적으로 보며 분석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성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로 길 학

근로자 제 1호 (루계 170호)

편집 위원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인 쇄 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1960년 1월 15일　　인 쇄•1960년 1월 10일

ㄱ—31016　　값 50 전

서 적 안 내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리론 및 보도 잡지

평화와 사회주의의 제문제

4×6배판, 128페지, 값 60전, 발행 매월 1회

본 잡지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제 문제를 천명하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문헌들을 게재한다.

본 잡지는 평화와 사회주의와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사업 경험을 연구 일반화하는 데 많은 지면을 돌린다.

본 잡지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형편과 투쟁,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 해방 운동 문제들을 천명한다.

본 잡지는 사회주의 건설, 국제 로동 운동, 식민주의 반대 투쟁에 관한 당면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에 지면을 돌린다.

본 잡지에는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들, 유명한 학자들, 평론가들, 민주 인사들이 기고한다.

본 잡지 조선문 판은 근로자사에서 발행한다

근 로 자 사

1960 년 1 월